

금주의 기도
 실낱같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어린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깨어있는 부모로 'Back To School' 시작!

크리스천 부모의 개학준비 요령과 학습지도 방향 가이드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방학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등 서부에 위치한 공립학교들은 개학을 했으며, 1-2주 사이로 속속들이 새 학기가 시작된다. 현명한 부모라면 단순히 학용품 구입하는 쇼핑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백 투 스쿨'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백 투 스쿨은 자녀들에게는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라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서 자칫 낮은 환경과 어색한 만남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백 투 스쿨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생활 리듬부터 백 투 스쿨을 위해 조율해야 한다. 방학 내내 수고한 부모들에게 개학은 자유, 해방과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천부모들에게는 개학이란 또 다른 차원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3개월 가까이 긴 여름방학 동안 흐트러진 생활리듬을 바로 잡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개학 준비 요령과 부모의 학습지도 방향 등을 알아본다(USNews & World Report, Children's Biggest Back-to-School Worry):

분히 자는 것이 좋다.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습 진도에 따라 숙제 분량도 늘게 된다. 가정에서 자녀가

수 있도록 20분씩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해 독서습관이 들도록 지도하며 칭찬을 자주 해주어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스쿨버스 관련사항 숙지

스쿨버스 노선과 등학교 시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쿨버스를 탈 때는 정류장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버스로 달려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 주변에서 뛰어다니지 말도록 주의시킨다. 부모나 카풀 차량으로 통학할 경우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앞뒤를 살펴보고 문을 열고 하차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 아이가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친구다. 친구는 아이가 집을 떠나 학교로 갔을 때 소속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3면으로 계속)

주류편입위해 '쌍성' 처럼 보이려는 것 경계

Reuters, '이미지세탁' 통한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전략진행상황 심층 보도

2년 전 미국 백인 민족주의 운동이 미국을 경악시켰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네오나치 시위 도중 한 극우 시위자가 군중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운동의 몇몇 지도자들은 전열을 가다듬었다. 분노를 부추기는 대신, 그들은 지지를 확보할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들의 더 큰 목표는 많은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2단계(Phase 2)'라고 부르는 것으로, 불쾌하다고 여겨져 배척되는 극우 사상들을 주류에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이러한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새로운 전략을 '정상화(normalization)' 시도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보다 부드러운 레토릭을 사용하고, 대립을 촉발하는 집회보다는 사교적인 모임을 갖는 단체들이 많아졌다(EI Paso massacre upends white nationalists' normalization strategy).

"지금은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쓰고 있다. 가족들끼리 모이게 한다." 백인 민족주의자들 자체하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알트-라이트(대안우파) 블로거 브래드 그리핀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지역의 백인 민족주의자 컨퍼런스에 참가한 친구들을 위해 자신이 조직한 강 튜빙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이런 가벼운 모임의 목표는 눈에 띄는 공개적 시위를 벌이지 않고도 극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그리핀은 말한다.

"밖에 나가 안티파(Antifa, 미국 극좌 '안티파시스트' 운동가들)와 엮이고 길거리에서 오줌이 든 풍선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그리핀과의 인터뷰는 텍사스주

엘패소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졌다. 엘패소 사건으로 인해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정상화'하려 시도해왔던 이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3일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21)는 '히스패닉의 (미국) 침략'을 규탄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선언문을 온라인에 올린 뒤 엘패소에서 22명을 살해하고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엘패소 사건은 일부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돕는다고 찬사를 보낸 인물, 즉 도널드 트럼프에게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2015년 대선 출마선언 이후 인종차별적인 자극적 수사를 계속 사용해 비판을 받아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지교회와 탄자니아 선교
최광재 선교사 16면

ATS와 ABHE 공인된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714)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 | | | |
|-------|-----------|----|------------|
| 대 학 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대 학 원 | 목 회 학 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여교역학과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마음의 화장품



김성국 목사 (칸스장로교회 담임)

“아모레 화장품이요~” 골목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화장품 판매 아저씨의 구성진 목소리. 점점 그 소리가 우리 집에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 아저씨는 반드시 우리 집을 들른다. 그리고 어머니께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 자주 있던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외상값을 치루지 못하실 때면 옆방에 있던 나의 마음도 부끄러움에 꽂혔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화장품을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도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화장품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 다섯이나 되는 누님들도 화장품을 서로 돌아가며 발랐지만(화장품 대신 오이를 썰어 얼굴에 붙이는 것도 가끔 보았다) 내게 바르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남성들을 찾기 쉽지 않다. 나도 물론 사용한다. 남성 전용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아내 화장품을 슬쩍 바른

한다. 화장과 관련된 성경에서의 인상적인 장면은 에스더서에서 보았다. 아하수어로 왕의 아내를 뽑기 과정에 후보 처녀들을 온갖 화장품으로 가꾼 장면이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에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에게 아무렇게나 하고 나갈 수는 없었다. 에스더도 오랫동안 곱게 화장하고 나아가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왕후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면 되는가. 아니다. 화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의 화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루라도 얼굴을 가꾸지 않으면 하루마다 탄력을 잃어가듯이, 정원도 방치하면 곧 더러워지듯이,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진다. 그런 황폐함을 가지고 우리 왕에게, 나의 신랑에게 나갈 수 없다. 여기 그 마음의 화장품이 있다. 이것들을 바르고 또 발라야 한다. 그 화장품은 우리들의 원형이었던 신의 성품으로 가꾸어 예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가게 한다. 무엇일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몇 있다. 기침, 가난, 사랑이다. 그리고 또 있다. 향수이다. 향수도 감출 수 없지만 아쉽게도 오래가지 않는다. 얼굴의 화장품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지만 자기 코앞에서 이내 사라진다. 마음의 화장품 냄새는 다르다. 거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 어디론가 쉽게 달아나는 향긋한 냄새와 달리 향기로운 냄새는 나에게 오래 남고 남에게까지 멀리 번진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문득 그 아저씨의 소리가 그립다. “아모레 화장품이요~”(지금 칼럼 속에서 은근히 협찬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즐겨 바르시던 그 화장품, 그 냄새가 그립다. 그러나 어머니의 진짜 냄새는 얼굴의 향긋한 냄새가 아니었고 마음의 향기였다. 가을이 저기 다가오는데 어머니의 향기가 몹시 그립다.

“하나님의 재비를 기대하되 저질러진 죄악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죄하고 용서하라!”

③크리스천이자 존경받는 타카미즈 무라오카 교수 참회록

(1742호 2면에서 계속)

가해 국가 일본 출신의 참회하는 일본이 학자가 우리가 잊고 감추고 있는 진실을 일깨운다.

타카미즈 무라오카 교수는 고전 언어 및 문헌학의 대가다.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그는 “학자들의 학자”다. 도쿄대학과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수학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등지에서 탁월한 가르침과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 노학자(1938년 생)가 일생의 연구서들과는 결이 다른 역저를 내놓았다.

그는 최근 한국어 역본으로 선보이는 “나의 비아 돌로로사”는 영어 원제-My Via Dolorosa: Along the Trail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in Asia-에 생생히 드러나듯 20세기 제국주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및 수탈의 역사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자, 그 추악한 역사 앞에서 느낀 고통스런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행한 침략과 수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내와 함께 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중국, 대만, 보르네오, 태국에 이르는 피해국을 돌며 참배와 사죄, 자비량 강의 등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속죄의 책임을 이행해 가는 여정을 담은 담백한 기록을 이 책에 담는다.

무라오카는 이미 학문 업적으로 특별한 존경심을 받고 있다. 성경 히브리어 문법의 대

교량 건설에 불법적으로 동원된 포로들과 민간인들을 보게 해준다. 전쟁포로 6만명과 민

는 일제 침탈로 인한 피해국을 순회하고 각국에서 5주간 머무르며 성경 히브리어와 사해 문서 히브리어 등 그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아시아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전하고, 몇몇 일 본인은 이전 세대가 아시아 국가에 행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눴다.

무라오카는 피해 국가 국민들이 일본의 악행과 그들의 선대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감각하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일본 식민 체

는 너무 자주 “잊고 용서하라”고 조언한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대한 손쉬운 처방전이 될 수 없는, 값싼 은혜에 기초한 유사 복음일 뿐이다. 진정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죄악이 가한 고통과 상처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진정한 주체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용서와 치유를 가능케 하시기에, 무라오카는 자신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되 저질러진 죄악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죄하고 용서하라고 조언한다.

무라오카의 충고는 허언이 아니다. 일본인의 의식을 강력히 지배하는 하나가 원폭 피해 의식인데, 히로시마 피폭의 고통을 잊지 않고 “더 이상 히로시마가 없기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난징 유린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난징이 없기를” 다짐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히로시마 태생의 무라오카



자신의 연구서와 결 다른 “나의 비아 돌로로사” 발간

한국 시작으로 피해국 돌며 참배와 사죄, 자비량 강의

작을 비롯해 히브리어 강조어법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시리아어-아랍어 문법, 사해문서 히브리어, 그리고 칠십인역 연구의 신기원을 이룬 최근의 칠십인역 헬라이어 사전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술 논문과 저서는 늘 그 분야의 기준을 세우고 신기원을 이루는 업적이었다.

“나의 비아 돌로로사”는 이러한 학술 저서들과는 전혀 다른 책이다. 저자의 학문영역과 먼 내용을 다뤘지만 그의 학문 정신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연구서를 자처하지 않는 수상집 형태지만 저자의 서술은 치밀하고 분석은 예리하며 성찰은 울림이 깊다.

처음 책장을 넘기며 “콕이강의 다리”라는 이야기가 눈에 와 닿는다.

무라오카는 이 글에서 태평양 전쟁 말기 인도네시아와 버마 간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무려 420km에 달하는 철도와

간인 20만명이 동원된 이 공사에서 영양실조와 중노동, 전염병, 추락, 폭발물 사고 등으로 1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시신도 수습되지 않고 명부도 위령비도 보상금도 사과문도 없이 허공에 스러지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그들에게 합당한 사과나 보상을 제공한 바 없다.” 건조하다 못해 무정하게 들리는 몇 문장이 일본의 가해 행위의 규모와 참혹함을 오히려 더 깊이 각인시켜준다.

이처럼 과거 일본이 많은 국가에 피해와 상처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일본인으로서 조국의 어두운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자는 절감했다. 그는 일본정부를 대신해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보이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실천적 방법으로 그

제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애써 강변하거나,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그들을 마주하며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당신들이 겪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내 조국 일본이 저지른 죄를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해야 한다.”

피해자가 잊은, 혹은 잊으려 하거나 심지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를 가해자가 되살려 스스로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기록들은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하다. 저자는 크든 작든 이미 저질러진 악행은 손쉽게 용서하고 편하게 망각할 수 없다며 참된 은혜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촉구

는 통렬히 지적한다. 한국에서도 북콘서트를 통해 한국어판 번역본을 알린 무라오카 교수는 “나의 비아 돌로로사”가 한국인들에게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책이 되길 바라며 일제 치하의 잔재로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겪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드리고 싶은 뜻을 전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래 겪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슬픔에 젖은 사람들,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도 만족스럽게 풀리지 않는 한일관계 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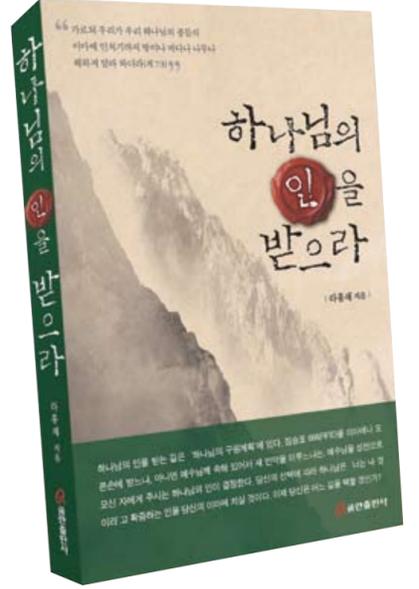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깨어있는 부모로 'Back To School' 시작!

(1면에서 계속)
 자녀가 학교를 갔을 때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자녀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클래스의 친구의 가족을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친구를 초대해 같이 학용품 구매하러 가는 등 아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

한편, 개학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최근 코인스타의 조사 자료를 인용, 학부모 5명 중 3명은 자녀들의 개학준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Getting stressed about going back to school). 이 가운데 45%가 새 학기 용품구매로 인한 비용부담이 가장 크지만 개학을 앞두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백 투 스쿨 쇼핑이다. 그러나 쇼핑에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

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백 투 스쿨 쇼핑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부모는 물론 아이들도 지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백 투 스쿨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될 수 있다. 아마존 같은 윈스탑 쇼핑이 가능한 곳에서 한 번에 쇼핑을 마치는 것도 한 요령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백 투 스쿨 쇼핑을 할 때 상대적으로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 후에는 아이들이 혹시 백 투 스쿨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서 첫 단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라고 거창하게 시작하면 자칫 아이가 주눅이 들거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자녀를 픽업해 운전하는 동안이나 잠을 보면서 혹은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무

심코 묻고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대화를 압박하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밖에 백 투 스쿨 스트레스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자주 조퇴를 하고 싶어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말수가 부쩍 줄고 대화를 기피 △하고 후 피곤해 하며 기운이 없으며 △이유 없는 짜증이 늘고 △속편을 못 취하는가? 전문가들은 이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새 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좋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다양한 문화, 종교, 및 생활 스타일이다 옳다고 배운다. 절대적으

로 옳은 것은 없고, 다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배운다. 집에 와서 표현하지 않을 뿐, 이에 동조하는 마음도 생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학교에 안 보낼 수는 없다. 비싼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는 일도 쉽지 않고, 홈스쿨 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부모도 약한 신앙의 분별력을 아이들이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다. 부모들이 깨어 있는 것밖에 없다. 자녀 교육의 근본은 부모이니 부모가 깨어 있으면 자녀도 깨어 있게 된다. 부모 같은 자식이 생기는 법이니, 부모가 시대를 이겨내면 자녀도 시대를 이겨낼 것이다.

신앙의 부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의 위신양성을 몰려주지 않기 위해 기를 써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 부모의 방향성 있는 올바른 열정이 아이의 신앙적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학 준비물들을 다 마련했다고 준비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주류편입 위해 '정상' 처럼 보이려는 것 경계

(1면에서 계속)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을 '침략'(invasion)이라고 여러 번 지칭하기도 했다.

5일 트럼프는 지금까지 밝힌 것들 중 가장 강력한 어조로 백인 우월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엘패소 사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한 목소리로 인종차별, 편견,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악한 이데올로기들을 물리쳐야 한다.”

살러츠빌 이후, 백인 민족주의 운동가들 중 일부는 시선을 끌지 않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극단주의자들을 추적하는 비영리 민권단체 남부민권법률센터에서 극우단체를 연구하는 하이다 바이리티는 많은 백인 민족주의 단체들이 고소를 당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추방당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대중의 시선을 끄는 대립을 피하게 됐다고 말한다.

바이리티는 “살러츠빌 이후 시위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좋지 않은 기사가 나고, 기소 당하고 소셜 미디어를 쓸 수 없게 돼 “운동에 가담한 이들이 낙담했으며”, 이에 따라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총기 사건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백인 민족주의



전국사회주의자운동(NSM)을 이끌었던 찰 슌이 아칸소주 의회 앞 시위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년 11월 10일 이 단체는 미국 내처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상화’를 시도하던 운동가들은 힘든 상황,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애초에 쉽지 않은 전략이었다.

로이터의 사진기자는 이 같은 전략을 가까이에서 관찰해왔다. 백인우월주의단체 쿨클릭스클렌(KKK)이

운영하는 ‘교회’의 유치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즐겨 찾는 조지아주의 레스토랑 겸 바, 아칸소주에서 수십 명의 회원이 보유한 자칭 네오나치단체 ‘월드워 네트워크’가 개최한 바비큐 모임 등을 찾아갔다. 그들은 주류에 편입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회원들 중 다수는 이 운동을 움직이게 하는 폭력적 비유들을 사용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른바 ‘대대적 교체(Great Replacement)’ 음모론을 믿는다. 백인 출신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좌파 엘리트들이 대량 이민을 부추겨 전 세계적으로 백인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엘패소의 총격범은 선언

문에서 히스패닉을 죽이기로 한 이유로 대대적 교체 이론을 언급했다.

월드워의 지도자 빌리 로퍼는 5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백인들이 인구적 우세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백인 출신율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총알’이 더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로퍼는 월드워가 불법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2곳에서 51명을 살해한 범인의 목표에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 범인 역시 대대적 교체 이론을 범행 동기로 언급했다.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 이후 전화 인터뷰에서 로퍼는 살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백인 인구를 교체하려는 유대인의 게임에서 장기판의 졸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인종적으로 “소국분할화”(balkanization)되며, 다양성이 커져가는 나라의 “현대생활의 안타까운 팩트”라고 답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언행일치, 과연 가능할까?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현재 한국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특히 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들의 언행 불일치로 '내로남불'이 유행어가 되었고, 국민들은 집권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도 목회자들을 포함한 지도층들의 언행 불일치로 사회로부터 교회는 지탄의 대상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언행일치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격의 덕목이다.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존경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안과 밖, 앞과 뒤와 전과 후가 일치하며 투명하고, 매우 정직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 면으로 측정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언행일치가 이루어진 신앙인들은 확실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간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언행일치의 모습이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은 곧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역사를 이루고 역사의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해 주셨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생을 살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님이 그의 지상 사역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언행일치의 모습이셨다. 만약 예수님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언행일치 결과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행동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적 삶속에서 이 언행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구성원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들을 비난한다.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특별히 설교자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힘든 일임을 실감한다. 특히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대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설교자 역시 다른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죄에서 해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나와 우리 이웃에 대해 좀 더 너그럽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언행불일치를 정당화하거나, 언행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이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설교자는 비록 설교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면서 그 설교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다른 성도보다 더욱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을 통해 그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설교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대언자의 설교로 듣고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손을 맞잡고 그 설교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할 때 설교자와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성도들의 회집인 교회는 그만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에 위임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내면서 이 혼탁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들어나면 우리들은 은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였고, 우리가 그 집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다(갈6:1-2).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열심히 언행일치의 인격과 삶을 이루어 보자.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와 교회를 이루어 보자.

**어?
성경이
읽히네!**

생장점이 터지는

구약성경일독학교

이애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 2019년 9월 11일 ~ 12월 11일 (매주 수요일, 11월 27일 휴강)
- 수요일전반 9:30am~11:30am
- 수요일저녁반 7pm~9:30pm

- 강의장소 : 하늘소망교회 (3416 W. 1st St. LA, CA 90004)
- 교재 : 성경책, 구약워크북/구약내비게이션(현장구입 가능)
- 등록비 : \$50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전문강사
- 임다나 전문강사
- 정민주 전문강사

• 문의 : 김덕수 목사(213-500-2948, dock.kim@biola.edu)

생터성경사역원
Life Place Bible Ministries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사랑의 힘

나는 아주 오래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살 때 미국 와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느라 영어 과외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과외 선생님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오

신 분이라고 했다. 변호사라서 그런지 아는 것이 많아 말이 대단히 많았다. 그분은 영어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하고서는 계속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

그러는 중 어느 날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전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그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부터 그분은 정말 영어 공부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만 하신 것 같았다. 그렇게 되니 나는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분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공격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말로는 그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에 늘 그랬듯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학식도 있

고 마음도 착한 것 같고 말도 잘하는 똑똑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 또 시간이 되어 그분의 집을 찾아갔다. 그분은 역시 그날도 나를 보더니 교회 욕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디서든 말하느라 교회의 부정적 요소를 다 말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나는 그분의 말을 한참 동안 듣다가 나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저 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학식도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날 그분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더 이상 교회의 욕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서 하는 말이 “종식이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 갔어요. 고맙다.” 나는 그날 그분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왔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 수많은 말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는 것

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진희 목사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울 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 학습 여행을 하면서 골로새를 방문했습니다. 골로새가 가까워오자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골로새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이드가 골로새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도시를 지나 시골로 차가 들어섰습니다. 좀 가더니 차가 길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가 말로만 들어왔던 그 유명한 골로새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베소나 빌립보 교인도에 가면 2천년전의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유적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큰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뒤로는 토러스 산맥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5월이었는데도 산꼭대기에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구릉지대에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교회를 잘 압니다. 골로새는 바로 라오디게아교회 옆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그곳에서 차로 10분,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이 만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가님이 초대 목사님이셨습니다. 바울 목사가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떠나신 다음에도 여러 번 오셨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바울 목사님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을 본 적도 없고 큰 교회도 아니었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으니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에 비해 가장 늦게 세워졌으니 교회 역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던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였느냐 하는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에바브라 목사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정도가 아니고 바다를 두 개씩이나 건너야 했습니다. 가고 오는 데 적어도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당시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용도 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12-16절을 보면 골로새서를 읽게 되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복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지고 이어서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거의 다 써가자 옆에 있던 마가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옥 중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마가와 누가도 바울과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

지들은 후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과 누가가 쓴 누가복음도 성경이 되었습니다. 한 초라한 전셋집에 모여서 같이 살던 바울과 마가 누가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료를 모아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쓰기에 제일 적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일 텐데, 복음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중역자이며 제자였던 마가와 누가였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마가와 누가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쓴 복음서를 읽어본 적이 없었습

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10년 넘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임당 예배 시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골로새교회는 13개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안부를 보내온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이 한 교회에 모두 안부를 전해온 교회는 골로새교회밖에 없습니다.

골로새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다른 두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교인들을 모든 교회 위에 자극히 높여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만 큰 일을 할 수 있

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교회에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까.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파묵칼레에서 흘러내린 온천물이 3-4킬로미터 흘러오면서 식어서 라오디게아를 지날 때쯤 되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이 그 물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부자라고 착각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또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염료 산업이 발달해서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질병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안약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누구나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교회는 딱히 책망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보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믿을 생활을 잘하며,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를 당신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솜아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교회는 잘 알고 골로새교회는 잘 모르는데, 어느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였습니까? 골로새교회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골로새교회가 그런 교회였지만 유명한 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였습니다.

골로새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있었고 라오디게아교회는 골로새교회보다 못한 목사님이 있어서 골로새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고린도교회와 빌립보교회를 비교해보세요. 둘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빌립보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반면 고린도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교인에 따라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인들 하기에 따라서 골로새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돌을 던지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굴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빌립보나 골로새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나 사데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jinhleel1004@yahoo.com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골로새서 4장 12-16절

해 그 먼 길을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게 골로새로 돌아갈 때 서신 하나를 더 써주고는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같이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길에 하나 더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유사한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골로새서보다는 에베소서가 더 친숙합니다. 에베소서가 신학적으로 더 깊은 내용을 담고

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들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지방대학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다니다고 믿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교회는 크게 보고 작은 교회는 작게 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큰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더 인정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나 교인들이야말로 훨씬 더 존중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교회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인

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들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지방대학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다니다고 믿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교회는 크게 보고 작은 교회는 작게 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큰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더 인정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나 교인들이야말로 훨씬 더 존중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교회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낳아서 키워 주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면 부모로서의 웬만한 역할들은 다했을 것인데도 더 주고 싶어 난리다. 넉넉한 유산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부모들이 주고 싶은 게 뭘까?

물질유산, 문화적 유산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땅이나 돈과 같은 물질적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서 물질적 유산을 풍족히 받아 편안한 삶의 여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못하여 부족한 가운데 살다보니, 받은 게 없어서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 전자를 가리켜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빼놓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본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문화적 유산에 매여 전통과 가풍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수준에 머물 뿐이다. 또한 물질을 지켜 그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허망할 뿐임을 보게 된다.

믿음의 유산 없는 물질유산의 허망함들은 성경 속에서 증명되 된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뒤, 다음 세대들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호수아가 그 이후 세대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려고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부모 덕분에 남겨준 땅과 빌딩을 잘 관리하면, 먹고사는 데는

세상의 성공 앞에서라면 언제라도 내팽개칠수 있는 그런 신이기에,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구태여 자신이 믿고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었다.

가정 믿음, 교회 충성, 세상회복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불분명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일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배와 교회, 신앙의 헌신과 충성이 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에 결구된 신앙의 유산이 없으면 결국 교회로부터 몸과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월을 가지게 된다. 결국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그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라니하게도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장로들도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친구이고 밥 잘 사주는 사람이어도 교회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욕할 때는 단번에 잘라내어야 한다.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더불어 주님의 진로하심 가운데 같은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망해가는 자리에 함께 동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적극적인 긍정론에 빠지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여릴 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믿음의 대물림, 세상의 회복

- 가정 믿음, 교회 충성, 세상 회복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후자를 가리켜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다. 후자는 아무것도 없는 무수저 인생이라고도 말한다. 유산은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의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이 있다. 물질만 있어서 부자는 되었는데 교양과 상식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 그들을 향해 돈만 아는 '졸부'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롱하는 말이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은 물질을 물려줄 뿐 아니라, 교육을 잘 시키고 교양을 갖춘 인물로 자식을 양육하려고 애를 쓴다. 사람들이 흔히 '네(사) 가지가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네 가지라는 사실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의미하는 좋은 말이다. 사람이 몸이 균형을 갖추고 건강하다는 것과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등의 분별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 때 네 가지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태도와 자세 교양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없는 세대였다. 어찌 보면 복 받은 금수저 같은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들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라고 말한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이 입에 금수저를 달고 나온 세대임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결론이 허망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이다. 물질적 유산은 풍성해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문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싫어할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에 맞물린 신앙한계

오늘날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을 진학하면서 2/3가 교회를 떠나고, 거기서 또 사회로 나가며 2/3가 떠난다고 말한다. 한국을 방문했더니, 교회마다 대학 수능을 위한 기도회와 수험생 명단들이 게시판에 나열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 해의 수능이 끝나면 그 다음해에 수능을 치를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새벽기도회부터 기도의 응원팀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은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본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주월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고3 수험생을 둔 권사님이 있었다. 아이가 고3이 되던 해에 교역자를 찾아가서 상담 후 간략하게 단언을 했다고 한다. 아들이 고3 1년 동안은 교회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아이에게는 미래를 위해 고3 한 해 동안만 교회에 빠지고 공부만 하라고 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아들에게 다시 교회에 나가도록 권했는데 돌아온 아들의 답이 다음과 같았다. ' 어머니, 저도 알만큼 다 알아요' 뭘 안다는 말인가? 어머니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성공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행하게 되는 것이다. 후자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나 착하게 살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의 기대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섬김을 떠나면, 인생은 돈을 섬기던지 자신의 야망을 섬기던지, 결국은 마음과 몸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것 즉 세상의 욕망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갈 따름이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교회가 교리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제 단하기 시작한다. 인터넷에서 취합되는 잡다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존귀한 부모세대에 하나님이 부여준 그 복을 내팽개치듯이 교회를 비판한다. 후자는 모태신앙이지만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말한다. 또 왕년에 받은 상처들을 간증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세상 앞에 절을 하고 세상 바라보며 사는 모습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유산에서 시작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믿음의 유산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에도 큰 복이 있음을 본다. 교회라는 곳이 가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 복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본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몸 된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욕하는가? 그것만큼

들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겠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은혜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수준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 내 자식이 그럴 때에 피 흘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쏟아내어야 한다. 만사를 제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돈을 벌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가정이 온전하고 교회생활이 복되고 세상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있는가에 먼저 겸손히 질문해 보아야 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찬양 팀에 속해 있는 여직사입니다. 찬양팀 멤버 중에 한 여직사와 사소한 일로 다툼과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피차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알지만 용서가 잘 안됩니다. 그 후로 관계가 더 나빠져 결국은 찬양팀을 그만 두게 되었고 예배도 그 집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예배시간을 선택해 드리다가 그것도 힘들어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펀에서 Yoon

A: 교회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박완서란 교수가 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단편 글을 읽어보니 행복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내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치며 살다보면 "가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것은 인간의 지성의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상처가 오래가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깊은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마음의 썩뿌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용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피하는 것보다 만나 화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용서와 화해의 편지를 쓰십시오.

왜 우리 크리스천이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마도 제일 중요한 원인은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 없어

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빛진 신하처럼 하나님께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에게 용서하고 베푸는데 인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패려눕힌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싸움은 얻어맞은 자가 이깁니다. 자기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자는 원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선대하는 자는 원수보다 나은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몬 게렐이라는 소년은 이웃 집의 배나무에서 배를 하나 훔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배나무 주인인 이웃집 할머니가 그 소년 집을 방문했습니다. 게렐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야단을 치지 않고 큼직한 배 한 개를 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빨간 장미꽃이 있었는데 그 장미로 그 소년의 볼을 톡톡 두드려주며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장미꽃으로 가볍게 맞은 소년 게렐은 금세 얼굴이 빨개졌으나 그 할머니의 용서와 관용의 태도에 감격하여 그 만 할머니 품에 안겨 영영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에 커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애에 대한 간증을 할 때는 이 할머니의 용서와 관용이 자기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했던 콘라드 목사를 약 10년간 끈질기게 괴롭혔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목사를 반대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인이 서부로 이사했는데 그 뒤에 편지가 날아왔는데 지금까지 자기 행동을 사과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콘라드 박사는 너무 기뻐서 이런 전보를 썼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용서했다, 잊어버렸다, 영원히).

◆ **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

청빙 초교파 교회로써 지난 48년 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 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2. 목회비전 및 신앙 고백서 (3 Page 미만)
3. 최근 설교 2회분 동영상 또는 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사절)
-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인 EM 전도사 지원희망자는 이력서를 하기 이메일 주소로 송부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9 월 30 일

제출처

1. 우편 :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중부 브힐(CENTRAL BHIL)

브힐족은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중부 혹은



스 평야지대에서 언덕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그들만의 독립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영국과 마라트하, 모갈 등과 싸워왔다.

많은 브힐족은 사트라 사라보 댐 계획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다. 만약 그 댐이 건설되면 브힐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홍수로 인해 모두 수몰되기 때문이다.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족은 주로 소작농과 막노동 그리고 촌락의 경비직으로 일하며 살아간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소유가 줄어들고, 자급자족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브힐족은 활과 화살을 다루는 데는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브힐이란 단어의 뜻도 빌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래됐다.

중부 브힐족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매우 독립적이다. 또한 축제와 춤, 연극 음악 등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브힐족들은 동일 신분끼리의 결혼을 원칙으로 한다. 만

약 타 계층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위 계층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류층으로 전위된다.

각 촌락에는 모든 논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우두머리가 있으며, 그들은 촌락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다. 브힐족의 가족들은 서로 유대감이 매우 강하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간의 강한 교감이 존재한다.

가죽 간의 재산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게 돌아가며,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를 따른다. 브힐족의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가옥들은 수수와 옥수수, 밀 보리 등이 자라는 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 가지를 엮어 집을 짓고 살아간다.

신앙

대부분의 중부 브힐족은 힌두교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토속신앙을 갖고 있다. 브힐족에게는 쉬바(Shiva)가 최고신으로 여겨지며, 조상숭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이방신앙에도 불구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갈(Bhagat) 힌두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현재 중부 브힐족은 빛과 깨끗한 환경을 가져온다는 미래의 예언이 담긴 그들만의 성서를 숭배한다.

북서지방에서 온 손님들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성녀에게서 난 죄 없는 성육신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며, 이와 함께 브힐족은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죄로부터 자유스러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브힐족은 바가트 브힐과 평민 브힐 그리고 낮은 신분의 기독교인 등 3분류로 나뉘는데, 보통 기독교를 받아들인 브힐족은 촌락에서 버림받게 된다.

현재 브힐족 기독교인은 1만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 속 바빌로니아의 남유다 침입 증거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이 BC 6세기 유다왕국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됐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신(新) 바빌로니아 제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BC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로 데려갔다.



미국 CNN에 따르면 13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발굴해온 노스캐롤라이나대 고고학팀은 잿더미 퇴적층에서 화살촉과 깨진 항아리, 램프 조각 등을 발견했다. 이 중 윗부분이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테슬(혹은 귀걸이로 보이는 윗부분)이라는 종 모양 귀금속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고학팀의 공동 책임자인 시몬 김슨은 "잿더미 퇴적층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다. 화살촉과 특별한 장식품들이 발견된 경우 황폐화, 파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화살촉은 스키타이 화살촉으로 알려졌다. BC 6-7세기 전후 지역에서 흔히 발견된 것이다.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도 이 화살촉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슨은 "발견된 유물들은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을 시사한다"며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은 BC 587-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고학 발견으로 성경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바빌로니아의 유다왕국 침입과 멸망 사건은 열왕기하 24-25장, 역대하 36장 9-21절, 예레미야 52장 등에서 기록하고 있다. 앞서 BC 722년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다.

남부갓네살은 BC 605년 헷족속(히타이트) 고대 성읍인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604년 남유다를 침공했다. 이로 인해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조공을 바치며 항복한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다.

당시 남유다는 18대 왕 여호야김(본명 엘리아김)이 통치했다. 그는 이집트왕 느고와 바빌로니아왕 느부갓네살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3년 만에 바빌로니아에 반역을 일으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다. 뒤를 이어 여호야킨이 8세 때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만에 포로가 됐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의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는 등 주민을 포로로 끌고 갔고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다. 남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던 보물, 왕궁 보물을 모두 탈취해갔고 솔로몬 시절 제작한 성전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 깨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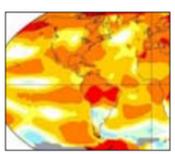
남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삼촌인 마달리아를 시드기야로 개명시켜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 역시 반기를 들었고 남부갓네살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을 불태웠다. 당시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의 사면을 헐어버렸

다(왕하25:10). 시드기야왕과 가족들은 나중에 체포됐고 남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처형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뿔 다음 쇠사슬로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BC 586년 이렇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을 직접 목도한 유일한 예언자이다.

이번에 고고학 유물이 발견된 시온산(Mount Zion)은 예루살렘 서쪽 해발 765m의 산등성이로 4세기부터 시온산이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지금의 시온산에는 다윗의 무덤과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가 잠들었다는 곳에 세워진 마리아 영명교회가 있는 도미시안 수녀원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베드로 통교교회가 있다.

지난 7월 '역대 가장 더운 달'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전 세계 평균 기온은 20세기 7월 평균 기온(15.78°C)보다 0.95°C 높은 16.75°C를 기록했다



NOAA가 188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7월이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기 때문에 올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NOAA는 7월 기준으로 역대 10위권의 기록 가운데 9개는 모두 2005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월 기온 역대 5위는 모두 최근 5년 사이(2015-2019년) 기록됐다.

실제로 올 7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치인 42.6°C를 기록하는 등 유럽 각지가 열파에 습격당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 뉴델리가 48.0°C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7월 고온에 남극과 북극의 빙하도 대폭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NOAA는 "기록적인 열기 때문에 북극해와 남극해의 해빙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손실됐다"고 밝혔다.

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북극의 해빙 규모는 약 190만㎢로 관측됐다. 이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평균치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2012년 7월의 기준 최저 기록보다 더 적다.

남극의 해빙 규모도 약 67만5000㎢로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년간 기록된 7월 빙하 규모 중 최저치다.

NOAA는 미국 알래스카주, 중부 유럽, 아프리카 등의 지난 7월 기온이 1981~2010년 평균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부와 러시아 동·서부에서는 평균치보다 기온이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는 지난 5일 올 7월의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7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약 1.2도 높아졌다고 추정했다.

미, 홍콩사태 적극 개입?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사태를 관망하던 미국이 '천안문 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개인적 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트윗을 날렸다.



중국의 무력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방관하는 모습만 취하자 거센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배후설'이나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홍콩사태에서) 자신들이 취할 조치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천안문 광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중국 정부가 민주화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빚어진 대규모 유혈참사 사건이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홍콩과 10분 거리인 중국 광둥성 선전에 중국군의 차량과 병력 등이 배치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해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줄지어 선 탱크 앞에 선 남자의 사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중국인들의 목소리, 1989년 중국 정부의 탄압을 기억한다"며 "홍콩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의 일대일 회동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이 홍콩 문제를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썼다. 홍콩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일대일 회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미 일간 USA투데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일대일' 회담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시 주석과의 '개인적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홍콩 사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중국과 홍콩 사이의 문제'라며 거리를 둔 태도 탓에 거센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려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평화 위해 하나 된 홍콩 기독교인...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에 나섰다. 최근 홍콩 시위대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공황까지 일시적으로 폐쇄되자 평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영국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홍콩성공회 주교들은 "도시 속에 파고든 긴장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폴 킵 대주교와 앤드루 쉐 주교, 티모티 킵 주교 등은 교구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인용, 기독교인들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움이나 증오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반응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

양측의 대립으로 분열되는 양상 속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을 듣고 소통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기독교연합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도 지난 13일(현지시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콩 시민과 정부, 교회에 지혜와 겸손,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자"고 덧붙였다.

다국적 신자들이 모이는 홍콩의 바인교회(Vine church)는 시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회는 신자들에게 시위 지지 여부를 떠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도록 주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아프간 결혼식장서 폭발 63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17일 폭발이 일어났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해 63명이 목숨을 잃고 18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카불 서부 '두바이 시티' 웨딩홀에서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아프간 내무부는 밝혔다. 나스라트 라히미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로 63명 이상이 숨졌고 182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자살폭탄을 이용한 테러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통상 이런 결혼식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한다고 한다. 한 목격자는 이번 결혼식에 1000명 이상이 초청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결혼식장 내부와 희생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목격자 글 무함마드는 연주자들이 있던 무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인 무함마드 투판도 "해결 중 다수가 희생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올해 들어 카불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결혼식장은 시아파 소수민족인 하자라족 거주지역에 있으며, 이 지역에선 지난 2년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거듭 발생했다.

AFP통신은 특히 아프간 결혼식장은 보안 검색이 종종 느슨해지는 탓에 손쉬운 테러 대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카불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결혼식장에서 열린 이슬람성직자회의에서 폭발이 발생, 40여명이 숨졌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이 미국과 탈레반이 18년간 이어온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국토 절반 이상을 장악한 탈레반은 지난 7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정부군 등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아프간에서는 현재 탈레반 외에도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도 각종 테러를 일삼고 있다. 2015년부터 아프간에 본격 진출한 IS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최근에도 민간인을 겨냥한 각종 공격을 벌였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0. 임성택(1872-1968)

임성택은 1872년 10월 12일에 경기도 부평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0년 11월 15일에 경기도 제물포에서 10살 연하의 임성실과 결혼하였고, 1903년 4월에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니븐 마루에 의지하여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나성)로 옮겨 1908년 1월에 그는 중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관을 열었다.

프레스토에 있던 위영민이 샌프란시스코의 전기 철로 신설에 3년간 300명에서 500명까지 고용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그의 여관은 동포의 기숙을 위한 대책이었다. 그해 4월에는 그가 샌프란시스코 지방 공립협회 경찰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곳 제일감리교회 무어 목사가 한인을 친절하게 교제하였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장인 명, 조영열 등 한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임성택이 수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50센트여서 총수입이 770달러 20전

1909년에 임성택은 중가주 디뉴바로 이주하였고 이듬해 디뉴바 인근 바이실리아에 거주하였다가 다시 디뉴바로 이주했고 1913년에는 디뉴바에서 복숭아와 포도 따는 일을 주선했다. 1917년 디뉴바 한인장로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당시에는 신문에 현금명단과 현금액수를 공개하였으므로 임성택이 건축헌금으로 44달러를 헌금했고 교인 중 제일 많이 헌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성권, 이치완, 오창곤 및 임성택이 주동하였는데 재목, 의상, 전기 등이 의상이었고 심지어 못 한 개라도 외상이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포도원 주인에게 헌금을 청하면 되지요'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수천 달러의 적지 않은 돈이 동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볼 때 그도 놀랐다.

당시 교인이 드린 헌금액이 508달러 70센트, 구 예배당 매매비가 250달러 그리고 재목 매매비가 11달러

이었다. 건축경비 지출에는 재목 구매비가 456달러 13센트, 목수 공전이 157달러 80센트, 철물 구매비가 17달러 10센트, 굴통 임대비가 14달러, 도배 공전이 30달러, 마차비가 1달러, 전기동기설비가 50달러, 페인트 비가 32달러 50센트 그리고 은행이자가 28달러여서 총 786달러 8센트였다. 부족액이 15달러 80센트였으니 자조 정신을 보게 된다.

디뉴바 한인장로교회를 건축한 1년 후인 1918년 12월에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건축에 임성택이 10달러를 헌금했고, 그의 부인 임성실이 5달러 50센트를 헌금하여 임성택 부부가 총 15달러 50센트를 헌금하였는데 제일 많이 헌금했다.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23년에 임성택은 나성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인이 병이 나서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926년이나 그 이전에 스탕톤으로 이주한다. 그해 8월 19일에 상항의 백인교회인 부

트 부인이 맡았다. 부인의 특별한 방문에 모든 교인이 만강의 환희를 표했듯 뿐 아니라 노약하신 몸으로 아주 열심히 함께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탁톤 한인감리교회 목사 김 탁이 한국으로 방문을 하는 1929년 3, 4월에 임성택은 김필권과 함께 교회를 목회한다. 주일예배는 물론 주일학교와 국어학교를 담당하였다. 그해 4월 태평양 대학에서 공부하는 허 근을 음악 교사로 초청하여 어린이에게 찬송가를 가르쳤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우리말로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학교 선생의 무슨 질문에 곧잘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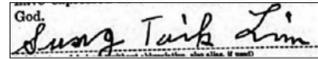
그달에 본 교회에 우연히 참석한 신한민보 기자에 따르면 버클리의 태평양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임정구 목사가 주일예배를 주장하였는데 정미다의 유창하게 치는 피아노에 맞추어 일반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눈이 있으면 바로 보자 귀가 있으면 바로 듣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예수교를 바로 보며 바

로 들어서 조선사회에 소화시켜야 한다는 대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실례를 들어 역설하였다.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북가주 버클리의 웨잇 남감리교회 증설실에서 S. R. 헤이 감독의 사회로 미국 남감리교 가주 동양인 선교연회가 있었다. 이날 임성택은 김필권과 함께 스탕톤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다시 파송되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 교실에서 있었던 한인부 회의에서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 공과를 쓰기로 결의하고 국어학교 교과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가결했다. 그리고 미국 남감리회 부흥목사 폴 박사가 12월 중순에 상항과 리들리에 이어 스탕톤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결의하였다.

1930년 4월 18일 오전 10시 상항 한인감리교회에서 미국 남감리교 지방교회 연합대회에서 임성택은 품행을 통과하고 김필권과 함께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김 탁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1930년의 등록교인 수는 80명이었고 출석은 30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세례교인이 1명, 유아세례 교인이 3명이었고, 헌금 총액은 600달러였다. 그런데 이 해에 임성택이 상항을 거쳐 남가주 나성으로 이주한다. 임성택은 1930년까지 5년간 스탕톤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1926년 스탕톤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 시작 나성한인감리교회 전도사...교회건축 등 적극 후원



임성택의 싸인

나성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24년 10월 나성 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던 교인 일부가 독립해 나와 버드롱 길에 있는 건물을 빌려 자유교회를 세운다. 6년 후인 1930년에 이 자유교회의 한승권 목사, 김관우, 김성권, 황성택, 박재형, 이영수, 임정수 등이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와 접촉하여 그해 7월 10일 나성 한인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인 1931년 1월 4일 오후 12시 50분에 나성 한인감리교회에서 나성 지방 감리사인 데이비스 목사가 김성권의 기도로 계삭회를 열었다. 이날 임성택은 강영승과 김 강과 함께 지방 전도사로 파송된다. 이날 목사 에 황사용, 평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 유사(제정주

원)에 황성택, 임정수, 광림대, 박재형, 윤으로서 그리고 박경신을 임명했다.

그해 4월에 일본 동경 한인기독교 청년회 구제부의 주선으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과 거주하는 한인들과 청년회를 위하여 헌 옷과 기부금을 모았을 때 나성 한인감리교회도 동참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이스크림 값을 저축하여 헌금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31년 7월 4일에 나성에서 데이비스 감독이 미국 남감리교 북미한인남감리교회 지방회를 열었다. 이날 지방 전도사의 품격에 따라 강영승과 함께 임성택을 다시 파송했다. 이후에는 교회장정에 의하여 지방 전도사는 품격뿐만 아니라 과목시험도 치르기로 하였다. 이날 나성 한인감리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결의하고 우선 3년 안에 1만 달러를 예산하고 본 선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의결했다. 그런데 교우들이 먼저 헌금하여 한인들의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임성택이 황사용 목사, 박경신, 이성례와 함께 청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튿날인 7월 5일 주일에는 남녀 교우 150명이 모인 가운데 위의 지방회에 참석했던 황사용 목사, 임정구 목사와 감독 무어 목사와 데이비스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다. 이날 무어 감독이 한인 교인으로 하여금 부흥의 정신을 가지도록 의미 있는 설교를 하였다.

1932년 9월 2일에 상항에서 미국 남감리교 연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임성택은 지방 전도사로 다시 파송되었다. 경건회에서 감독인 데이비스 목사는 그리스도가 교역자의 심령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교역자의 정신을 새롭게 하였다. 그달 4일 주일에는 감독 무어 목사의 병환으로 총회의 클락 박사가 대신 설교를 하였다. 이 세상 사람은 육체의 육신과 명예와 권세 등 셋을 도둑질하려고 단축길을 지원하지만, 예수는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정의와 박애주의와 신자에게 못 박히심으로 완전한 천민인의 구세주가 되었으므로 그는 한인사회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주창했다.

그해 10월 10일에 개학한 나성 삼일 한국학교의 위원으로 임성택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에 안석중이, 다른 위원으로는 한영대, 김용성, 송승조, 이영기, 정지영, 안상학, 송현영이 있었다. 교장에 황사용 목사였고, 교사에 송현영이었다.

임성택은 1968년 12월 14일에 남가주 나성에서 향년 96세로 하나님의 부르기에 응했다. 부인 임성실이 소천한 지 21년 후가 된다. 슬하에 제시, 존, 폴, 데이빗 그리고 피터 등 4남 1녀가 있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 | | | | | |
|--|--|--|---|---|--|
|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일성경부: 오후 08:00 금요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 뉴욕새별장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성경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 뉴욕새생명장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40 162 St., East Meadow, NY 11554 |
|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경부: 오후 1:30 주일학교연합회: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부: 오후 1:30 수요일 안무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주일학교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e, NY 11303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
|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 | | | | |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순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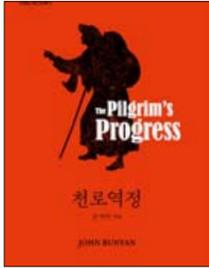
I.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하)

6. 한 문장으로 보는 천로역정

1)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 나온다. 2)복음전도자에게 길을 물은 후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만 도움이 수렁에서 구해준다. 3)울법의 언덕을 지난다. 4)문지기 친절의 안내로 빛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5)그 안에서는 해설자의 집이 있다. 6)이를 통해 십자가 언덕에서 드디어 무거운 짐이 풀린다. 7)백리향 풀밭에서 두루마리를 받는다. 8)고난의 산을 통과한다. 9)아름다운 궁전에서 네 자매를 만나 전신갑주를 얻는다. 10)겸손의 계곡에서 아불루온과 결투를 벌인다. 11)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12)허영의 시장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한다 13)소망과 함께 탈출하여 광산 언덕에 이를 때 재물 노인의 유혹을 받는다. 14)아담한 풀밭을 지난다. 15)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에게 붙잡히지만 탈출한다. 16)기쁨의 산에 이른다. 17)실수의 벼랑에 이르러 속이는 자의 유혹에 빠진다. 18)마법에 걸린 땅에 이른다. 19)빨라 나라에 이른다. 20)사망의 강을 통과하여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

그 거울 속에서 가시 면류관을 쓴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또한 그분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것도 보았다. 정말로 그 거울은 신기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모습을 보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거울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생전의 모습이나 돌아가신 다음의 모습, 땅에 계시 때의 모습이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나 높이 찬양받으시는 모습, 고난을 당하려 오는 모습이나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둘째 성경은 '큰마음(Great-heart)'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창조했던 지도와 같이 묘사된다: "그는 지도책을 보고는 그곳에서 오



내 손에 달라붙게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일단 같이 내 손이 붙게 되자 마치 칼이 팔에서 솟아난 것 같았고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낀 나는 더욱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죄악에 결사적으로 대항하느라고 피까지 흘리셨군요"라고 '큰마음'이 응답한다."

2) 복음에 대한 강조

번연은 복음에 대한 관점의 3가지 국면을 강조한다. 처음 두 가지는 루터가 놀라운 거대로 불렀던 국면을 말한다. 첫째 국면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처벌이 그리스도의 어깨로 이전되었다. 둘째 국면은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 어깨 위에 걸쳐져 그분의 의로 옷 입는다.

셋째 국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이 갖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번연은 이를 위해 '희망(Hopeful)'이 어떻게 '믿음(Faithful)'이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지시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믿음'은 '희망'에게 먼저 속죄와 칭의에 대해 설명했다. '희망'이 말한다:

복음의 관점 3가지 국면: 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②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③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 능력

7.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강조와 신앙의 유익들

천로역정은 크리스천과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삶을 나타내는데, 이 작품은 천국도 설교자들의 설교와 가르침 안에 망라되어 있는 실재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성경에 대한 강조신앙

이 작품은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접근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3가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회화화 하고 있다. 첫째로 성경은 자비(Mercy)가 목자의 궁궐에서 팔라고 칭한 거울로 묘사된다: "그 거울은 희귀한 거울이었다. 한쪽으로 보면 보는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쳐지고, 다른 쪽으로 보면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그 거울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들은

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만일 거기서 지도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 모두 수렁에 빠져 질식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는 이 지도를 반드시 품속에 가지고 다녀야 하겠구나. 그래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게 될 때 퍼낼 수 있겠구나."

셋째 성경은 '진리의 용사(Valiant-for-Truth)'가 '거친 머리(Wildhead)', '무분별(Inconsiderate)' 그리고 '참견(Pragmatism)'이라는 3명의 도둑과 맞서 싸울 때 사용했던 칼이다. '큰마음'은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든 칼"로 인정했다:

"진리의 용사'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칼을 잡고 다들 졸 아는 사람이 이 칼을 갖는다면 감히 천사들과도 겨루어 볼 수 있지요. 이 칼날은 결코 무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살과 뼈와 영혼까지도 벨 수 있지요.' '큰마음'이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그토록 오래 싸웠는데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군요. 이때 '진리의 용사'가 대답한다. '나는 같이

"믿음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일찍이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의 의로움은 물론 온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도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한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이에 희망이 대답한다: "물어 보았죠. 그랬더니 그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 때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그분에게 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가도록 내가 초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온갖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분을 빚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3면으로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서민의 어버이 엘리사

참고 성경: 왕하 1-9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우상에 빠진 악한 왕이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바알세불에게 물어 보라 사람을 보내다. 엘리사에게 짐승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야단맞고 죽는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자리 물려주고 승전하다. 엘리사는 주로 아합 등 상위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했다면 엘리사는 아래로 임하여 백성들을 돌본 선지자였다. 넘치는 기쁨을 받은 과부(4:1-7), 아들을 얻은 수넬 여인, 해독의 이적, 보리떡 이십 개의 기적, 나아만의 문둥병치유, 떠오른 도끼, 하나님의 군대로 도망친 아람군대로 아이를 잡아먹을 극심한 경제공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다(6:19, 7).

사랑하는 주님!

사역자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음에 안심이 됩니다. 크게 나라도,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도 다 각기 돌봄이 필요하여 다른 사역을 시킵니다. 절대 우열도, 비교할 수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명임을 깊이 명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드러낸 서민의 어버이 선지자입니다.

어느 일, 어느 곳에 보내어졌어도 떨어진 곳의 주님의 백성을 돌봄을 사명의 분복으로 감사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작은 크든, 도시건 시골이건, 떨어진 곳을 분복으로 알고 성령행진으로 충성케 하시니 감개무량합니다.

불신자와 영애를 같이 맨 대가

"모양과 암몬이 유다를 치니 하나님께 여호사밋이 전심으로 엎드려니 큰 무리를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20 -15)의 말씀에 힘입어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니 대승하다.

여호사밋이 죽고 나니 불신자와 영애를 메어 그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시킨 것의 피로 물든 왕위의 열매를 본다.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르며 악정을 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악행을 일삼다 죽는다. 아들 아하시야가 잠시 왕위에 있다가 전쟁에서 상해 죽고 나니 모친 아달라가 유다 집 왕의 씨를 다 말리려 피바람이 몰아친다. 고모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요아스를 빼돌려 살린다. 마녀 아달라가 육년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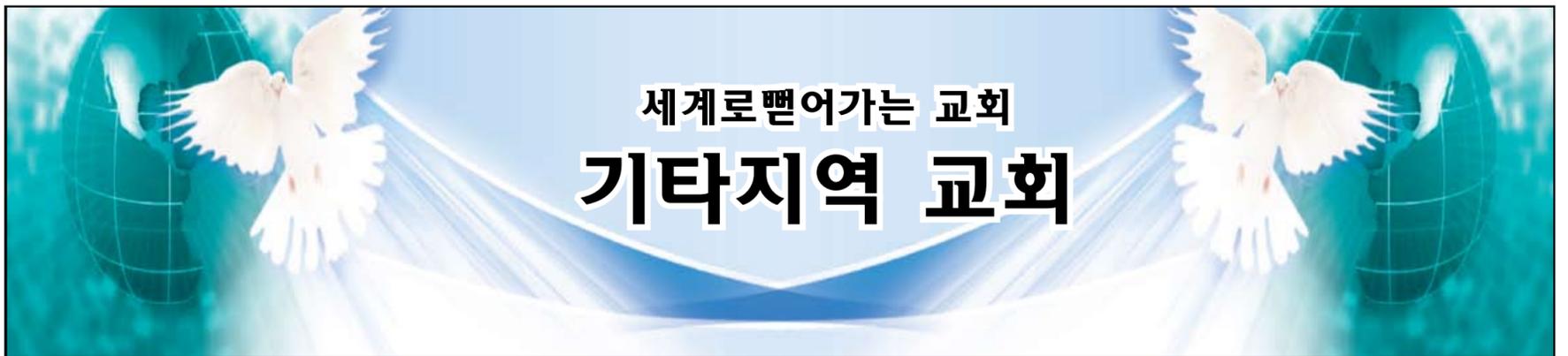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실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역대하19:7).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서로 이익 상관으로 죽고 죽이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하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나와 함께 주님 늘 곁에 계시어 막아주시고 싸워 주시니 듣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견고히 섭니다. 주님여서는 형통의 길을 가겠습니다(역대하20).

하나님을 의지하다 불신자와 사단 맺어 결국 승리한 나라를 제 손으로 우상에게 송두리째 바친 여호사밋의 오류를 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결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케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만사형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heeenlee55@hanmail.net



| | | | | | |
|--|--|--|--|---|---|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사별기도회: 오전 6:00 |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찬양회: 오후 8:00 |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은사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영적, 육신, 종교: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2:45 금요찬양회: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육, 영혼: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 엘파소델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애)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회: 오전 7: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목회서신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요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기들은 어머니 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자지리지게 울며 또한, 눈을 맞추는 사람마다 두려운 눈망울로 쳐다본다.

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의 대화가 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영화의 제목은 <프랭키와 자니>였다. 여 주인공 프랭키는 허름한 식당의 웨이츄레스로서 하루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자니라는 남자가 그 식당에 요리사로 취직해 들어왔다. 통속영화의 흐름대로, 그들은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남자 주인공 자니는 프랭키에게 결혼하자고 말한다. 그랬더니 프랭키는 말한다. 자신은 과거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여서 아기를 유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프랭키는 그 이후로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

었다고 말하며, 그 남자가 허리띠로 자신을 후려쳐서 생긴 머리의 흉터를 보여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 때 자니는 그 가련한 여인의 머리에 새겨진 흉터에 키스해주며 말한다. "이젠 다 치유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러자 여 주인공 프랭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두려워요. 혼자되는 것이 두려워요. 혼자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현재의 내 모습이 두려워요. 원래의 내가 아닌 것이 두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두려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 직장을 잃을까 싶어서 두려워요, 그런데 또한 이 직장에 평생 동안 묶여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

요, 정말 피곤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이젠 너무나 피곤해요"(필자는 이 장면을 캡처하여서 YouTube 채널에 올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75gxYOKDA). 그 당시, 나는 프랭키가 주절대던 그 두려움을 나의 내면에서 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걱 공감의 눈물을 쏟고 말았던 것이다. 그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 아닐까? 나는 과연 문학을 꿈꾸며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옛날의 나일까? 나는 내가 젊었을 때 흉보던 그 고집스럽던 구세대로 변한 것은 아닐까? 젊을 때 탐욕과 부패를 향하여 분노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덩어리로 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가슴에 품고 있던 그 꿈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만약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가슴조리며 갖게 된 이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미래 없는 곳에서 발버둥 대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모두들 승승장구하는데 혹시 나만 뒤쳐져 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친구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혹시 나 혼자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죽게 되지는 않을까? 사람은 끊임없이 삶과 인간관계, 미래, 불행, 질병,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초적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다(창3:10).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던 것이다. 사람은 안전 자체인 하나님을 떠났기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영생을 갈망하게 되며, 죄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고 말씀해 주셨

다.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두려워하며 숨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중에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요20:19-22). 그 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숨어있던 장소에서 튀어나와서 죽음도 불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 하였다. 나는 어린 심대에 두려움에 감혀서 살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나는 지독한 겁쟁이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둡고 긴 두려움의 동굴에서 벗어 나와서 밝은 태양 아래에 서 있음을 느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 같았다. 태양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고, 나무들이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으며, 선선한 바람이 내 얼굴을 간지럽히는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그 여인처럼 지독한 두려움, 마음에 검은 트라우마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음악회에 대하여 김미선 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선교사 휴식처 GCC 건립 후원음악회

9월 8일(주일) 오후 5시 월서연합감리교회 글로리크리스찬센터(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수, 이하 GCC)가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LA근교에 건립하게 된다. 이를 위한 펀드레이징 콘서트가 "드림 투 드림(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오는 9월

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김미선 대표는 "규모가 큰 선교단체나 대형교회, 교단 파송 선교사들은 휴식할 수 있는 선교관이 있지만 그 외에 후원을 받지 못한 선교사들은 마땅히 갈 곳도, 쉴 곳도 찾기 어렵다"며 "GCC는 초교파로 운영하며 온 삶을 드러 헌신하고 있는 현역 선교사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콘서트는 오르간연주자 석기향 박사, 하프연주자 그레이스홍, 바이올리스트 권대술, 테너 오위영 목사, 마림바 연주자 크리스티나 천, 오렌지 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가 출연해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다. GCC 후원에 대한 문의는 (213)369-3861(USA), Kakao Talk ID: pilgrim01, 이메일: genesismusic2000@gmail.com으로 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새 지방회장에 잔 강 목사 선출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제4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8월 11일 오후 5시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잔 강 목사)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사회에 잔 강 목사(부지방회장, 남가주새언약교회), 기도 최낙현 목사(회계, 세계복음선교회), 설교 오병익 목사(지방회장, 남가주벤엘교회)가 빌립보서 4장 1-13절을 본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잔 양 목사(서기, 굿프렌즈교회의)의 광고에 이어서 박용덕 목사(총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회무에서는 임희철 전도사(섬김과나눔교회)의 목사 안수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된 제17회 미주총회에 따른 각종 정원서와 헌장개정을 다루었으며, 지방회와 미주총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한편 신입 임원으로서는 △지방회장에 잔 강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부지방회장으로는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 △장로부회장 문장혁 장로(남가주새언약교회) △서기에 잔 양 목사(굿프렌즈교회 담임) △회계 김영일 목사(더섬기교회 담임) △부서기 강정윤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 △부회계 엄인애 목사(남가주벤엘교회)가 각각 선출돼 한 회기를 섬기게 됐다. ▲문의: 잔 강 목사(714-200-7890) (기사제공: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살롯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살롯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감사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나성균 담임목사는 "경배와 찬양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감사예배가 형식을 잘 갖추면서도 역동적이고 유언하며 모든 교우들이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예배로 진행돼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의미를 체감하도록 준비하며 진행했다"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 사랑에 최선을 바치기로 공동적인 합심과 헌신을 드리며 특히 열두 제자 열전 설교 마지막인 셀롯인 시문을 주제로 더 큰 비전으로 전진한다"고 밝혔다. 1977년 8월 28일 150여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린 당시에는 한인 인구가 불과 20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마치 교회 개척을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왔다고 한다. 그 이후 살롯장로교회는 한인사회에서 교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사명도 감당했다. 초대 담임목사는 최태식 목사, 2대 송영성 목사, 3대 이희운 목사, 이후 임시 당회장이었던 강준원 목사를 거쳐 나성균 목사가 4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주류편입 위해 '정상' 처럼 보이려는 것 경계

<3면에서 계속> 이런 극단적 시각을 주류에 편입시키려는 전락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정상화 시도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KKK의 지도자(grand wizard)였던 데이비드 듀크에서 볼 수 있다. 듀크는 KKK의 상징이었던 흰 예복과 끝이 뾰족한 모자 대신 신사복을 입고 주류 보수주의에 가까운 논점을 언급했다. 1991년에는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듀크는 큰 표차로 패배했지만 루이지애나 백인의 절반 정도는 듀크에게 표를 던졌다. 정상화 시도가 보편적이지는 않다. 일부 극우단체는 지금도 대립을 일으킨다. 일례로 '프라우 보이즈(Proud Boys)'는 10월에도 뉴욕에서 공화당 클럽행사 반대시위를 연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팻 란조는 조지아주 드레이크 타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레스토랑 겸 바를 운영한다. 이 '조지아 피치 오이스터 바'는 그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할 뿐이라는 게 란조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증오한다."

교들의 형법 연구자들이 함께 만드는 미국 극단주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극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살인자들은 62건의 살인을 저질러 모두 124명을 숨지게 했다. 이 통계에는



살롯 네트워크 회원들이 아칸소주 의회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및 총기 소유펀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수의 백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주류 보수주의자들에게 애매하게 의견을 갈릴 수 있는 인종주의 이외의 문제를 꺼려한다.

실시된 인터뷰에서 롬이 말했다. "회원을 늘리는 건 우리에게 큰 목표가 아니다. 영향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와보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들이 문장마다 '흑인을 비하하는' N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극우이념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미국 경제처럼 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정책연구기관 브레넌정의센터의 연구원 마이크 저먼은 "그럴싸한 의복"을 걸침으로써 거리에서 충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단체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두고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늘 논쟁을 벌여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법은 트럼프 덕분에 동력을 확보했으며, 인종적 분열을 초래하는 트럼프의 레토릭도 영향을 끼쳤다고 저먼은 설명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 일하며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상대로 7년 간 첩보활동을 펼친 경력이 있다. "이전까지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주류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그들은 (주류에) 들어오려는 초청을 받고 있다." 다만 그들이 주류 세계에서의 일상을 건널 준비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만든 해먹에 누워 쉬고 있는 KKK 멤버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 란조는 미국 남부에서 KKK들이 전통적으로 세력 과시를 위해 하던 행사인 십자가 화형식을 하도록 네오나치와 KKK에게 이곳을 빌려주기도 했다. 오늘날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이미지 세탁은 극우 이데올로기들이 오래 전부터 폭력을 행사해 온 역사를 감춘다. 여러 대학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 청소년센터 SAT 프로그램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송윤섭 장로)가 진행하는 2019년 가을학기 SAT 프로그램이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열린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코리아푸드 페스티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주최하는 코리아푸드 페스티벌(한국음식 나눔축제)이 9월 8일(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개최된다.

뉴욕조이플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뉴욕조이플여성합창단(지휘 최현옥, 반주 전성혜) 정기 연주회가 9월 8일(주일) 오후 6시30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목회자가족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남침례회 뉴저지한인지방회 목회자가족수양회 참석자들이 성경박물관에서 기념촬영 했다.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목회자가족수양회

미남침례회 뉴욕 뉴저지 한인지방회 연례행사인 목회자가족수양회가 올해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렸다.

뉴욕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사흘간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서 총 33명이 참석했다.

개회 예배는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사회로 박국화 목사(한마음교회) 기도 후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회, 증경총회장)가 디모데후서 4장 5-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도 제단을 쌓아서 지병도 치료받고 목회도 부흥으로 이끈 체험 간증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관제로 부여지듯 헌신하며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자"며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순서로 김재용 목사(영원한교회)의 색서폰 찬양 연주가 이어졌다.

둘째 날은 미국의 시작인 청교도 유적지와 민속마을

(Plimoth Plantation) 등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의 뿌리를 기억하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식사교제 후 한필상 목사(뉴욕안디옥교회) 인도로 친교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각자의 믿음의 시작과 뿌리를 되돌아보고 각 각 케이프 카드 혹은 보스턴 방향으로 흩어지며, 수양회를 통한 재충전으로 영혼 구원과 목양에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지방회(회장 송재현 목사)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DC에서 목회자가족수양회를 열었다. 이전에는 주로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 또는 집회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성경박물관과 홀로코스트 박물관 관람을 통해 성경의 능력과 세상의 아픈 기억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9번째 뉴욕 화요찬양모임 시즌2

뉴욕에서 부르는 장년세대들을 위한 정기 화요 찬양모임 시즌 2 '나를 살린 찬양' 9번째 모임이 8월 13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 플라싱노던 블러바드 169



9번째 화요찬양모임 마치고 게스트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가에 위치한 킹도마이 저미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총디렉터 송정훈 장로(뉴욕교협 19대 이사장, 보협전문가)가 게스트로 출연해 '우리에게 향하신'(김

진호 목사 곡)을 가지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진웅 교수가 우정 출연해 플루트로 반주를 담당했다.

(기사제공: 화요찬양모임)

조국의 위기,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되길

뉴저지교협 8.15 구국기도회, "지금,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뉴저지 프라미스교회(박우신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20:30)"라는 주제로 목회자와 성도들 2백여 명이 참가했다.

기도회는 회장 홍인석 목사 인도로 러브뉴저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이문홍 장로(부회장) 대표기도, 육구철 장로(회계) 성경봉독, 윤명호 목사(직전 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윤명호牧사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사37:14-20)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 처한 문제를 하나님의 손위에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하



뉴저지교협 8.15 구국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만세삼창하고 있다.

며 기도할 때"라고 강조하며 "히스기야가 현재 처한 위기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한 것처럼 일본을 멸망하게 해 달라고 또는 잘 타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러브뉴저지 찬양팀의 찬양과 통성기도가 계속 됐으며 기도제목을 내놓고 합심으

로 기도한 후 대표자들이 마무리 기도를 인도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 양춘길 목사(전 회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위정자와 정기를 위한 기도 허상희 목사(전 회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김중국 목사(전 회장)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의 영적대각성을 위한 기도 유병우 목사(전 회장)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장학범 목사(그레이스벤엘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준 목사(전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애국가 제창과 대한민국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은퇴식과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한 뉴욕교계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송병기 원로목사 추대, 허신욱 담임목사 취임

목양장로교회 설립 37년... 감사 넘쳐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의 은퇴/원로/공로 목사 추대 및 허신욱 담임목사 취임 예배가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목양장로교회를 설립하고 37년간 시무해온 송병기 목사는 "나 행한 것 죄뿐인데... 구원해주시고 45년 7개월간 목회자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이어서 부모님과 감사했다

2대 담임으로 취임한 허신욱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는 이 자리가 두렵다"며 "궁홀히 여겨 주셔서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자랑스럽다"며 "지난 3년간 송병기 목사님은 셋째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앞으로 부모님처럼 모시겠다. 목양 성도들의 믿음이 여정에 동반자가 된 것을 감격한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부 감사예배는 박용진 동북노회 부노회장(KPCA) 인도로 김경길 목사의 찬양, 김명하 목사의 기도, 호산나찬양대 찬양, 박희소 목사 설교, 뉴욕사모합창단 찬양으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증경총회장)는 "신앙인의 감사"(살전5:16-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앙인의 원초적 감사는 첫째, 믿음 주신 것(믿음은 선물) 둘째, 구원해주는 것에 감사 셋째, 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며 "송병기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와 허신욱 목

사의 담임취임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2부 원로/공로 목사 추대는 오영관 동북노회 노회장의 기도 후 원로목사 추대경과보고 및 추대사 최광명 장로(당회서기), 선포 오영관 목사, 원로목사 추대패 증정 최원진 장로, 공도목사 추대패 증정 오영관 목사, 은퇴 축하패 증정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 은퇴기념패 증정 신현택 목사(뉴욕목우회 대표), 축가 뉴욕장로성가단 뉴욕팬플룻앙상블, 축사 김창길 목사(증경총회장), 인사말 및 가족인사 송병기 목사, 축가 김정인 집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당회는 송병기 목사에게 은퇴금과 첫 월례지원비를 전달했다.

3부 담임목사 취임은 최명혜 목사(동북노회 서기)가 허신욱 목사를 소개하고 서약, 기도, 선포, 축복기도 및 성의전달, 축하영상(김삼환 목사), 꽃다발 증정으로 진행됐다.

2대 담임 허신욱 목사는 한동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M. Div., Th.M 수료)을 졸업했다. 진명와 사모와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4부 권면과 축하는 허신욱 취임목사의 부친 허성근 목사(전 영남신학교 교수)와 정순원 목사(뉴욕교협회장의)의 권면과 목말선교합창단의 축가, 박태규 뉴욕목사회장의 축사, 허신욱 목사의 인사, 장연오 장로의 광고 후 김정국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집회와 소그룹 나눔, 체육대회 등

BTS(Missio) 한인동문회, 2019 여름수련회

BTS(비브리컬신학교) 한인동문회(회장 박상돈 목사)는 매년 여름 개최하는 동문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뉴저지 한무리교회에서 열렸다. BTS는 최근 캠퍼스를 도심으로 옮기고 Missio로 학교 이름을 바꾼 바 있다.

12일 첫날 개회예배와 오리엔테이션 후 미니 체육대회를 가졌다. 저녁집회는 단바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13일 둘째 날 아침은 큐티로 시작됐으며 맨해튼 투어가 있었다. 저녁집회에서는 박상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소그룹 나눔이 진행

됐다.

이번 수양회 참석 동문은 박상돈, 임동영, 김영선, 구정모, 박승환, 박희열, 정성철, 홍인석, 최우성, 이응우, 홍대관, 박익희, 이승원, 이지용, 김종철, 오창훈, 장세종, 권태택, 한효우, 신철웅, 이성신, 오세준, 김기환, 권승원 동문 등이다.

재학생은 박종건, 이지호, 이두영, 김지명, 이진우, 박애란, 이은유, 고요한, 정영균 등이 참가해 선배동문들과 교제하며 축구경기를 하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강사 김인환 전 총신대 총장

KAPC 뉴욕노회 목회자수련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홍춘식 목사) 목회자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팰리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HNA)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 김인환 전 총신대 총장이 초빙됐다.

일정은 첫날 도착예배 후 저녁식사를 하고 세미나(1)를 진행했으며, 둘째 날은 새벽기도회와 세미나(2), 점심식사 후 자유시간을 가진 후 오후 8시부터 저녁예배를 드렸다.

셋째 날은 새벽기도회와 아

침식사 후 폐회예배를 드리고 점심 후 해산했다.

김인환 목사는 1강의에서 창세기 1장 26-28절과 2장 15-25절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정은 언약이 성취되고 더욱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가정은 기원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결혼해야 한다"고 가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기사제공: KAPC 뉴욕노회)

뉴저지 한소망교회 4대 담임 정세훈 목사

91%지지...PCUSA 동부한미노회 9월 노회서 인준

뉴저지 한소망교회가 8월 11일 공동의회를 열고 정세훈 목사(사진)를 제 4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정 목사는 213명 중 찬성 193표, 반대 20표를 얻어 91%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 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9월 정기노회에서 인준 과정을 밟게 된다.

한소망교회는 지난해 4월, 3대 김귀안 목사가 재신임에서 부결돼 교회를 떠난 후 노회의 협조를 받으며 올해 2월부터 청빙을 준비해왔다. 한편 김귀안 목사는 지난 7월말 뉴저지 세빛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다.

정세훈 목사는 1, 2부 예배에서 사무엘상 23:1-14을 본문으

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이민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근고하다 할지라도 내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물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했다.

정세훈 목사는 장신대 신학원(M.Div., Th.M.), 에모리대학교(Th.M.), 시카고신학교(Ph.D. Study)를 졸업했다. 2000년 목사안수를 받고 예틀랜드 엘립교회와 2002년부터 시카고 헬로쉽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2009년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LA새한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5월말까지 사역하다가 이번엔 뉴저지 한소망교회의 청빙을 받았다. 1968년생으로 정하영 사모와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BTS 한인동문회 2019 여름수련회 개회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강사 이덕주, 김찬희, 옥성득 교수

LA연합감리교회 설립 115주년 기념 역사포럼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 설립 115주년 기념 역사포럼이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용수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계홍 장로 사회로 열린 역사포럼은 이창민 목사가 개회사, 이상범 박사(미주장신대 총장)이 개회기도를 했으며 제프리 관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 총장)가 환영사를 했다.

이날 포럼은 △이덕주 교수(전 감신대학교 교회사 교수)가 '미주한인디아스포라 신학형성에 관하여-포와한인교보와 '대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찬희 교수(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가 '70년대 이후 이민교회 발전사'를 △옥성득 교수(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학 석좌교수)가 '이민사회 미래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덕주 교수는 "이민한인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1903-1912년 미주지역 한인 1세대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기



LA연합감리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역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독교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 그리고 고국동포로서 애국심을 바탕으로 '뒤틀린학'을 일구었다"고 언급했으며 "하와이 및 미주본토에서 태어난 2세대 한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후 미국인 사회에 적극 진출하면서 교포사회의 환경과 분위기를 바꾸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한 한국인도 완전한 미국인도 될 수 없었던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미국태생 한인과 한국태생 한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이라며 "교포사회의 뒤틀린 한인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신

앙을 가미하면 1세대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수립한 한인디아스포라신학의 핵심요소가 갖춰지게 되며 부모와 자녀세대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부모의 조국은 자녀의 조국이 되고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 되어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을 대를 이어 전승되고 계승됐다"고 언급했다.

김찬희 교수는 "한국이민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 신자가 많다는 것이다. 1965년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 중 30%가 미국에 올 때 이미 개신교 신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한어 교회의 수의 감소, 영여권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한인교회의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교인들

을 엘리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인교회는 교인들의 수는 적더라도 내실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 한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한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든다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옥성득 교수는 "우리가 바뀌 나갈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재해석해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민이 우리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역사 주체는 디아스포라였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계 민족 살리기 위해 이 땅에 파송 받은 남은 자들이다. 이민 신학은 망명자로서 남은 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뒷세대들이 했던 분향으로 가는 순례자로서 신학, 그것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한인교회는 단기 이민자를 포용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교회는 영적센터로 지지사이버넷이 일어나고 북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한다"며 "이민신학에 대한 정립, 그리고 어떻게 세대교체를 잘할 수 있는지가 토론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 게시판

소망소사이어티 LA 치매가족 지원모임 장소 날짜 변경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LA 치매가족 지원모임의 장소와 날짜가 변경됐다. 모임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한인타운 내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한 소망소사이어티 LA지부 사무실(3030 W Olympic Blvd. #217, LA, CA 90006)에서 열리게 된다. 이 지원모임을 통해서 가족 간병인들은 상호간에 정신적인 지원, 치매에 관한 교육, 그리고 간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심리적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문의: (562)977-4580

남가주코랄 페스티벌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에 권사)가 주최하는 남가주 코랄 페스티벌이 25일(주일) 오후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09)319-2159 (213)479-4511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박종호 장로 찬양간증집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박종호 장로 찬양간증집회를 24일(금) 오후 7시에 '초심'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문의: (858)279-9191

2019 세미한 제자 컨퍼런스

달라스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2019 세미한 제자 컨퍼런스를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밥 로버츠 목사이며 일정은 23일(금)과 24일(토) 오후 7시 25일(주일) 오전 8시30분, 10시30분, 오후 2시다.

▲문의: (972)446-0178

극단 어울림 '퓨전심청' 공연

극단 어울림(대표 손영혜 권사)은 오리엔트카운티 한인회관 개관을 축하하는 마당놀이 '퓨전심청' 공연을 31일(토) 오후 6시 개최한다. 공연장소는 오리엔트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이며 입장권은 특별석 20달러, 일반석 10달러다.

▲문의: (909)610-0889, (714)530-4810

담임목사 청빙

21세기침례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남침례교단 소속 또는 교단가입이 가능한 자로서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안수 받은 자로 3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미국체류에 문제없는 자(영주권, 시민권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학부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교회웹사이트 자료실 양케이트 참조) △본인설교 2-3회분(동영상 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문의: 21stcbc21@gmail.com

제 15회 글로벌 인터내셔널 미션 릴리

GIM(대표 정윤명 목사)이 주최하는 제 15회 글로벌 인터내셔널 미션 릴리가 9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5일(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산호세 Foxworthy Baptist Church(담임 Don Fugate 목사)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www.visionGIM.org에서 볼 수 있다.

▲문의: (925)639-9527



히스뮤직카페 8월 콘서트에서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

'열정' 주제로, 말씀 박성호 목사 히스뮤직카페 30번째 콘서트 열어

히스뮤직카페(대표 마원철 목사) 8월 콘서트가 13일 오후 6시30분 컴미션 내에 있는 히스뮤직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윤승준 선교사가 스마트폰 강의를 했으며 이인규 목사와 밴드가 청중들과 함께 '정다운 노래 함께 부르기'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정수 형제가 힘합 찬양을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진 후 박성호 목사(ANC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좋으며 열정이 가장 멋진 때는 그 대상이 사람에게 갈 때"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우리 각자는 모두 시작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마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마

(박준호 기자)



라크마 유대인 커뮤니티와 우정의 하모니 콘서트에서 마친후 출연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라크마, 유대인 커뮤니티와 우정의 하모니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콘서트 열어

라크마와 유대인 커뮤니티의 우정의 하모니 콘서트가 17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라크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지휘 윤임상 교수)과 유대인심포니오케스트라 코러스(지휘 노라 그린 음악감독)가 협연으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서곡으로 윤임상 감독의 지휘로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하고 이어 노린 그린의 지휘로 그레이미상을 받은 루커스 리치만의 교향곡 'This will be our reply'를 연주했다.

이어서 한국곡으로 음악평론가 탁계석의 글에 오병희가 작곡한 '한국의 혼(Spirit of Korea)'이라는 칸타타가 연주됐다.

유대전통음악이 연주될 땐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을 찾아온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며 흥겨워했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중 4악장 'Ode to Joy'가 연주됐는데 소프라노 이지은 테너 오위영과 메조소프라노 다이아나 타스, 베이 스 론 리 파스가 독창자로 나서 우정의 하모니 콘서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박준호 기자)



74주년 독립기념 예배 및 이승만 대통령의 날 선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 74주년 기념 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이승만대통령의 날 서명식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은 74주년 대한민국 독립기념 예배 및 이승만 대통령 기념식을 6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선교회(담임 장순성 목사)에서 거행했다.

제1부 '이승만 대통령의 날' 서명식을 가진 후 제2부 광복절 감사예배를 가졌다. 이우호 목사 사회로 장순성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최학량 목사(원로 목사회 회장)가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선택된 백성'(시

33: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가 축도했다.

제3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날 결의문 및 선포식을 거행했다. 결의문 및 선포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광복절 노래, 이어서 금병달 목사 대표기도, 장순성 목사의 환영사, 이요셉 군의 결의문 낭독, 최학량 목사의 축의문 선포, 조운규 의원의 결의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GMAN 선교사사랑방 8월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황금기선교운동에 여성 보내자" GMAN 선교사사랑방 8월 정기모임

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 8월 사랑방 모임이 17일 오후 2시 열렸다.

김정환 선교사 사회로 열린 사랑방 모임은 최찬영 선교사 격려 말씀을 전했다.

최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5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는 선교사로서 본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것처럼 일생동안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는 "우리 모두 황금기선교운동에 가담해서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며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데 한 몫한다면 그 일생은 기쁨이 넘치는 생애 될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 윤상혁 에티오피아 선교사와 김찬희 케냐 선교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김상규 김재순 황금기선교사 부부가 인사말을 전하고 김민희 목사가 축사 및 축복기도 했다.

이어 최찬영 선교사가 김찬경 선교사와 김상규 선교사 부부를 황금기선교사로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김찬경 선교사와 김상규 선교사 부부를 축복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금병달 목사 마침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 창립 20주년 홈리스 기숙사 기금모금 음악회가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렸다

홈리스 기숙사 건립기금 모금 울타리선교회 창립 20주년 연례음악회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제20회 연례 기금모금 음악회를 19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가졌다.

전찬용 변호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스칼라(Southern California LA)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를 비롯해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김용식·지휘 조성환)과 한인기독교합창단(지휘 김동근), 박트리오, 소프라노 유희정, 테너 최원현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특별 순서로 울타리선교회의 김성일 이사가 부친 고 김여진 목사를

기리며 홈리스 학생 7명에게 각 1,000달러씩 김여진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는 블래싱여성합창단, LA온누리교회 성가단, 브래비싱어스, 코렐리움 미션콰이어, 세실체임버콰이어, 외대코랄, LA랩스코랄, KAMA합창단, LA신포니에타 유스오케스트라 등 250명에 달하는 연합합창단이 '코리아 판타지'를 피날레로 선사했다.

이날 음악회를 위해 모금된 기금은 홈리스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기숙사를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해방의 은혜…이젠 과거 아닌 미래로”

교계 연합기관들, 광복절 제74주년 메시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계속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이 광복절 제74주년을 맞아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8.15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며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어 독립, 자유, 국권 회복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순한 선교사, 순교자들이 나라와 민족, 복음의 진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특히 “일본과의 갈등 가운데 자칫 반일 감정에 경도되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신 격’이 되어 있는 안 될 것”이라며 “불행은 동과 반일 시위는 당장은 우리 국민을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하고 슬기로운 대응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지난 일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근대화를 이룬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없이 국민에게 승리를 안기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먼저 본질에 충실하고 거둬진 분얼을 깊이 회개하여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에 의해

축발된 민족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며, 작금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외교를 통해 공동의 평화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적으로는 한일관계를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고, 민족과 국민의 역량을 다시 하나로 모아 산업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특히 한일관계의 악화된 정세에 편승해 이념과 정략에 따라 편을 나누는 일이나, 정책적 실수를 덮고 전가하려는 소심함을 내려놓고, 보다 대승적 자세로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광복을 완성하여 국가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목숨 걸고 일제에 항거하며 순교의 제물이 된 신앙 선조들과,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 나라와 민족,

평화와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우리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선택을 강요받으며 소용돌이치던 8.15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생의 기적을 이루어 낸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며 “우리 모든 국민은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말한다”고 했다.

한장총은 “젊은 사람들이 극우, 보수라고 밀쳐내는 80대부터 70대 60대 50대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피 흘렸다. 젊은 청년의 시기를 최루탄 가스에 묻혀 살며 인생의 꿈들이 무너지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지켜냈다”면서 “촛불혁명의 참뜻을 묻는다. 촛불을 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들의 참 목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를 택하겠다는 것이었겠는가”라고 했다.

독립만세 외치던 자리, 광복 기쁨의 노래

유관순 열사다닌 천안 매봉교회 ‘농어촌문화나눔음악회’

1919년 3월 31일 밤, 당시 17세였던 유관순 열사는 천안 매봉산 정상에 올라 기도드린 뒤 지어 내 독립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15일, 산 아래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독립 만세 함성이 퍼져나갔다. 이번엔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광복의 기쁨이 함께했다.

8·15 광복 74주년 기념 ‘농어촌 문화 나눔 음악회’가 이날 오전 11시 천안 매봉교회(박운익 목사)에서 (새한국농선회(회장 소구영 목사) 주최로 열렸

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전국농어촌 목사합창단 지휘자인 베이스 최철 교수, 소프라노 조영주 교수, 피아노 박지현 교수와 방송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한 테너 안세권이 출연했다. 지역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히즈미션 북음 뮤지컬팀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오늘같이 멋진 날에’ ‘오 나의 태양’ ‘내가 바라는 세상’ 등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이들의 공연에 박수와 함께 브라비(Bravi)를

외치며 환호를 보냈다. 매봉교회는 유 열사를 배출하고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회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 선 유 열사가 올린 봉화를 시작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유 열사의 작은 아버지였던 유중무 당시 매봉교회 전도사와 조인원 속장 등 교회 성도들은 아우내 장터로 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교회는 이후 일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 일제는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불태웠다. 세번째였다.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의병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매봉교회에 방화했다. 1907년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82명의 성도가

의연금을 보낸 것을 빌미로 또 교회를 불태웠다. 매봉교회 성도들은 세 차례 방화에도 굴하지 않고 매번 교회를 재건했다. 100년 만에 매봉교회 예배당에 1919년 그날의 합성이 다시 이어졌다. 음악회를 통해 예배당에 모인 이들은 다 함께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창을 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음악회였다.

박운익 목사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이해 음악회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본받아 일본의 영적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북한지역 교회 3·1운동역사 한 자리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연말까지 100여점 전시

북한지역 교회의 3·1운동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올 연말까지 개최된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오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기도 이천의 박물관에서 ‘백 년의 기억, 천 년의 평화’ 기획전

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기획전 ‘백 년의 기억, 천 년의 평화: 북한 지역 3·1운동의 역사’와 특별전 ‘조선형무소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전시회에서 이병주 연희전문

학교 학생회장의 3·1운동 체험 수기를 비롯해 ‘조선형무소 사진첩’(1924), 1919년 3월 12일 서을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와 승동교회 차상진 목사 등이 함께 쓴 ‘12인의 장서’ ‘독립운동가 김주립의 편지’(1919) ‘구한말 옥중도서 대출명부’(1905) ‘기미년 학생운동의 전모’(1946) 등 100여점의 실물 자료가 공개된다.

이천의 도자예술과 접목한 ‘

도자에 새긴 민족사랑 나라사랑’ 체험학습 행사와 3·1운동 당시 사용된 태극기를 목판에 한지와 함께 탁본해 태극기를 만들어보는 행사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물관 측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북한 지역 교회의 3·1운동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죄해야 진정한 화해”

‘일본기독교 원로’ 오야마 레이지 목사, 화해의 길을 말하다

“일본인 따위 이곳에 오지 마. 빨리 돌아가 버려. 이유도 없이 우리 아버지와 남편을 죽였잖아. 일본인 따위는 오지 마.”

구수를 넘긴 일본인 목사가 기억하는 1965년 경기도 화성 제암리 현장이었다. 가해의 역사를 사죄하기 위해 찾은 그곳에서 70대 할머니는 당시 30대였던 청년 목사에게 다가가 울분을 토했다. 할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본군에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보아만 했다.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교회에서 주민 20여명이 학살된 ‘제암리 학살사건’이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광복절인 15일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목사는 이날 한국 성도들 앞에서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오야마 레이지(尾山 令仁) 목사다. 일본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오야마 목사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위원회인 일한전선선교협력회의 회장이다.

오야마 목사는 13일부턴 나흘간 일정으로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에 일본인 사역자 및 성도 200여명과 함께 참석

했다. 오야마 목사는 15일 ‘한일 화해를 위하여(마5:23-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해다. 전 세계적으로 대립과 증오, 불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일 양국 간 화해는 매우 중요하다”며 화해를 강조했다.

화해의 진정한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언제까지나 기억한다”면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사죄하는 게 진정한 화해라는 뜻이다. 그는 “일본인들은 원폭의 피해자였다는 점만 부르짖는데 피해자이기 전에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자신이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오야마 목사는 “56년 초여름 아침 큐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다음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다. 바로 이날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었다. 기독교인에게 우선하는 건 예배지만 ‘회개’와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사죄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일이다. 목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냉소적 반응만 돌아왔다.

어렵게 찾은 제암리에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학살사건 이후 이 지역에선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라졌다. 주민들은 피해자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여겼다.

오야마 목사는 “심한 충격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제암리 교회를 일본인 손으로 재건하는 게 진정한 사죄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제암리학살사죄위원회를 발족했고 1년도 안 돼 1000만엔을 모금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쉽지 않았다. 유족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공식을 막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려는 오야마 목사를 차량에서 끌어내기도 했다.

70년 9월 제암교회 완공식 날 오야마 목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유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5년 전 오야마 목사에게 ‘오지 마라. 제암리를 떠나라’고 했던 할머니도 다가왔다. 오야마 목사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은 뒤 일본어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때 쯤이 아닌가 싶었다”고 회고했다.

제암교회를 통해 사죄와 용서, 화해를 경험한 오야마 목사는 거듭 용서를 구했다. “마음에서부터 사죄를 드립

니다. 부디 우리들, 일본인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사죄가 없는 곳에 화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죄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마음은 이곳에 함께한 일본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도쿄 은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카리우 유스케(39)씨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본의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끊임없이 회개하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윤보환 목사

직무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 수행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윤보환(인천 영광교회)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했다. 기감은 20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 예배실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선거를 실시했다.

직무대행 후보는 연회 감독을 지낸 뒤 은퇴하지 않은 31명 목사가 대상이었다. 이날 2차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22표로 얻은 윤 목사는 16표를 얻은 안승철(대전 힐탑교회) 목사를 제치고 직무대행에 당선됐다. 직무대행은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성평등 조례개정 청원 기각

‘동성애 옹호’ …경기도 “재의 대상 안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에 반대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청원이 기각 당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긴급 청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재의 요구 권한은 도의회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도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없을 시 단체장으

로선 이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기에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긴급 청원은 지난 5일까지 5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도청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조급세 유만석 장항희 신옥균)은 “도민이 아닌 의회만을 위한 편들기식 졸속 답변이자 면피식 도청 행위”라며 “오는 25일 도청 앞에서 항의 기도회를 여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신학대학원대, 이단 평가제일교회에 매각?

황원찬 명예총장 작년말 매각시도…교회 인사들 법인이사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즉 신학교였던 안양대가 대전성주교회로 넘어가려다 무산된 가운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도 평강제일교회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는 박운익씨가 세운 교회다. 기독교 타락관, 계시관, 창조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장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이단, 예의주시 결정을 받았다. 1994년 탁명한 소장을 살해한 인사가 이곳 소속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평강제일교회와 학교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면서부터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실질적 오너인 황원찬 명예총장의 학교 매각 시도가 있었으며 법인 이사장인 교수 중에 평강제일교회 관련 인사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총학생회와 황 명예총장은 지난 5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매각(권소사업)을 중단한다’ ‘법인 이사회는 평강제일교회 출신 인사 4명에 대한 사표를 받고 즉시 수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합의사항이 완료되면 매각 관련 일체의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즉시 학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난달 비상대책위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부당성을 고발하는 공고문을 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총학생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산공고를 냈고 총학생회장을 3일 만에 퇴학시켰다.

이후 평강제일교회를 담임하는 이승현 목사가 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목사와 황 명예총장의 가교 역할을 한 S교수가 법인 이사로 평강제일교회 측 인사를 추천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희명 총학생회장은 19일 “정통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를 이단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황 명예총장과 법인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평강제일교회 돈을 받지도, 매각 협상을 진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만약 학교를 넘겨야 한다면 인수 주체는 예장대신 교단이 될 것이다. 평강제일교회와 같은 이단에 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황 명예총장과 이 목사의 관계는 단순 협력 차원이 아니었다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는 총장 부재로 대행체제에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매각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 들라”

제46차 기독교실업인회 한국대회 개막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3일 오후 개막한 ‘제46차 기독교실업인회(CBMC) 한국대회’ 참석자들이 CBMC의 목적과 비전을 제창하고 있다. 대회에는 전 세계 CBMC 지도자 2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가

주최한 ‘제46차 한국대회’가 13일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독교 실업인과 가족 2600여명이 참석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62:10)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했다.

기독교 실업인들은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회원들은 “주여”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승을 한국CBMC 중앙회장은 대회사용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대 간 융합, 경제위기 회복을 이루기 위한 기치를 들자. 이제 새로운 미래와 지평을 열어가는 활로를 개척할 때”라고 말했다.

CBMC 한국대회는 15일 오전까지 진행된다. 한동대 동남아유학생팀,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다문화 미션 페스티벌을 열고 꿈과 비전을 나누는 청년·대학생 창업 5개월을 선별해 한 팀당 최대 2억원씩, 5개팀에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다.

CBMC는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이 만든 선교단체다. 국내에 281개 지회와 39개국 13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성경적 경영을 통한 일터 변화와 전도 및 양육이 목표다.

선교 펴기

아이티

아이티에서 고아원 사역에 집중하는 the corner(대표 조항석 목사)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단기 순회선교를 진행했다. the corner가 보내온 선교일지 중 첫날 부분만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8월 13일, 슬픔 때문에 잠시 기쁨을 잃었습니다.

아침 7시에 버스가 왔습니다. 통역담당 토니와 엄 집사님, 폴, 다희가 점심 도시락을 찾으러 델마의 예포도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져갈 짐과 남은 짐을 정리하고 8시에 브니엘 고아원 근처 호숫가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호수의 수영장은 작은 호텔에서 운영합니다. 브니엘 고아원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레이크 아주이(Lake Azuei)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크기로 아이티에 있으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을 이룹니다.

호텔이라고 해야 방 아홉 개에 작은 매점이 있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밖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커다란 튜브에 바람을 넣으면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브니엘 고아원 60여명과 가브리엘 고아원 22명이 오늘 초대환의 손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고아원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려서 11시부터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물놀이를 하고 점심을 먹고 풍선도 만들고, 손톱도 칠하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놀이를 실컷 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브니엘 고아원과 가브리엘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댄스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조금만 도와주면 케이팝 스타가 될 것 같은 정말 수준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점심은 커다란 닭고기 거 큰 도시락입니다. 다 먹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의 도시락에 이름을 써서 고아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오후 3시쯤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새학기용 학용품과 과자와 여러 가지 선물이 가득 든 백팩도 주고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와 소다도 한 병씩 안겨서 보냈습니다.

가져간 커다란 튜브와 축구공도 전해주고 호숫가에서 식량과 의약품도 전해줍니다.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정말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넘치고 보내주시고 모든 분들의 사랑에 코끝이 찡한 날이었습니다.

스티브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게 말합니다. 오늘은 두 개 고아원(브니엘, 가브리엘)을 초청한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 킹덤 고아원(Kingdom of Children)에 들려 선물도 주고 음악회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 5월 방문 때에 탁 선교사님께서 “한 번 가보겠느냐”고 하셔서 찾아가보니 8명의 예쁜 아이들이 맨바닥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는데 벽에 교복만 덩그러니 걸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5월 방문 때, 지난 4월에 렌트 계약이 끝났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주인은 재촉하고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 만난 고아원이라고 그냥 좀 더 두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가서 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맨 바닥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 할 일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였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매트리스라도 사줘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은 나중에 로사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받아가게 했습니다.

7월에 방문했을 때 렌트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아직 해결이 안되었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 년 렌트비가 2천5백불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선택 내리지 못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려고 아이들을 돌보는 청년에게 전화를 했더니 고아원 건물에서 쫓겨나 아이들이 교회 식당을 가정으로 끌어줬다고 'Kingdom out'이라는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기운 없었지만, 맑고 선한 아이들이 눈에 선했

니다. 돈이 넉넉지 않다고, 쓸 곳이 많다고, 학교 운영비 때문에, 이래저래 망설이며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이들은 그나마 돌봐주던 거처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교회 식구들 가정으로 끌어줬다고 하는데 안 보아도 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평균인 나라에서 남의 집 생활은 그냥 좀 굶어도 모여 사는 고아원만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막했습니다. 돌아와 탁 선교사님과 로사 선교사

님과 이야기하다가 통곡하듯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눈물을 멈출 수 없어서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고아원이라고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정신으로 십일 년을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내라고 말만 했습니다. 일 년 렌트비 2천5백불이 없어서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잠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감당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당장 부담이 된다고 입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킹덤 고아원의 청년을 불러 우선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눈에 가물거리는 아이들 모습 때문에 저녁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살롬 고아원을 초대해서 물놀이를 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더 큰 슬픔이 만난 하루였습니다. 솔직히 슬픔 때문에 잠시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정을 위해서, 킹덤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thecornerhaiti@gmail.com

채플린 임상목회 (31)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정신과 병동의 첫 주일 예배

미국 일반(개신교나 천주교 계통 병원이 아닌)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스테프들을 위한 기독교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경우가 아마도 처음이라고, 적어도 텍사스에선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약 일 년전부터 정신과 병동의 환자들을 일주일에 두 차례 만나 그룹 세션을 인도하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참석자가 늘면서 기독교인 환자들이 한결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혀왔기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러나 조용히 병원 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마침내 채플린 디파트먼트, 소셜워커 디파트먼트, 정신과 병동원장, 전체 종합 병원장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약 3개월간의 실험적 허용을 인가받았습니다. 소식을 듣자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환자들의 집중도와 스테프들의 브레이크 시간, 환자 증세에 따른 격리된 층별 구조 때문에 20분씩 세 번을 연속적으로 드려야 하고, 디지털 장비나 기계는 반입할 수 없어서 초대교회 같은 아날로그식 예배의 핵심 요소만을 갖고 예배순서를 구성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어 3개월 기간 동안 격주로 드리는 예배지만 찬송과 기도, 말씀과 축도의 극도로 심플한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강력한 회개와 소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첫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살 시도를 이미 수차례 했거나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쁨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기원하였습니다.

환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감정이 절망감과 좌절감인 관계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 반복되는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광선적인 종교집단에서 세뇌를 당하고 영적인 상처를 받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계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10분 정도의 짧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 번에 걸쳐 특별로 나누어 드린, 세상에서 드린 예배 중 가장 짧은 예배였고, 가장 초라하고 작은 방에서 드린 예배였으며, 악기도 반주도 영상도 없이 육성으로 찬송하고 강대상도 없이 그냥 서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은 얼마나 저들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려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기독교인 예배에 참석했다는 어느 무슬림 환자는 그동안 성경공부를 하는 그룹모임에 들어와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했던 일들을 사과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면서 성경구절과 기도문을 적힌 교재를 참석한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날 역시 껌을 늘어놓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약까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져서 잠을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가 수업시간에 나눠준 성경구절을 읽고 기도문을 따라한 후 잠을 청했는데 아침까지 처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 주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다가가서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이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했지만 그것은 저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tdspark@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신우신염

방광염이 진행해 신장에 감염

방광염은 여성 대부분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 매우 흔한 요로 질환이다. 방광염이 진행해서 신장에 감염되면 신우신염(pyelonephritis)이 되고, 이때 감염이 혈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로 패혈증(uro sepsis)이 된다. 따라서 흔히 대장균(E.coli)과 같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신우신염과 요로 패혈증의 주된 원인균이 되는 것이다. 방광염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신우신염이나 요로 패혈증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신우신염이나 요로 패혈증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50대 후반의 가정주부 조 모 씨

는 일주일 전부터 몸이 몹시 피곤하고 오른쪽 허리가 아픈 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사흘 전부터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 증세도 함께 나타났다. 또 소변을 볼 때 요도가 따끔따끔한 증상이 있었고, 소변을 보고도 금방 다시 소변을 보고 싶은 증상(빈뇨감)이 심했다. 이를 동반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는 몹시 어지럽고 발열감이 심했는데 해열제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왔다. 조 씨는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지난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 또 10년 전에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검진상 혈압은 수축기 90mmHg, 이완기 50mmHg으로 저혈압이었으며,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랐다. 체온은 39.4도로 피부 점막이 건조해

보여서 육안으로도 탈수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왼쪽 옆구리를 두드릴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소변검사서 다량의 세균과 백혈구가 검출되었다. 초음파검사로 확인하니 좌측 요도가 늘어나 있었고 수신증(hydronephrosis, 요도가 막혀서 신우가 확대되는 질환)이 보였다.

조 씨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또 수신증 치료를 위해서 막힌 부위를 넓혀주는 스텐트(stent) 삽입술을 실시했다. 혈액 배양 검사상 대장균(E.coli)이 검출되었지만 항생제 치료로 완치되었다.

신우신염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거나 요로 결석으로 요도가 막힌 경우 발병하기 쉽다. 또 선천적으로 비뇨기계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요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 등에는 쉽게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우신염에 걸릴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의 길이가 짧아서 세균의 유입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급성 신우신염은 초기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

(8면에서 계속)

3) 기도에 대한 강조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자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과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이 동일한 일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와 곧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구함으로써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전심으로 신뢰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강력한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희망’이 말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넘쳤으며,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백성을 향해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크리스천이 권한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에 그의 자태를 드러내신 계시임을 틀림없군요. 그렇지만 그 계시가 당신의 마음에 특히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좀 말해 주십시오.”

지질렀던 일들이 몹시 부끄러워졌고, 내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로써 나는 마침내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4) 회심의 중요성

회심을 통해 좁은 문을 찾도록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전향을 요청하는 것은 변연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다. 변연은 이런 회심의 필요성과 본질이 크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던 시기에 이 작품을 썼으며, 또한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자체가 회심의 중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회심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회심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무지’, 신앙을 말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인 ‘수다쟁이’, 좁은 문을 무시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회심을 멀리하도록 이끈 ‘세속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 회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고 있다.

아메리카지역 헌장의 구조변화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8)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통전적 선교

통전적이란 단어는 헬라어 형용사 HOLOS에서 파생되었는데 신약의 몇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HOLOS는 "전부의" "온전한" "분리되지 않는" 전체의(영어단어 whole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임) 라는 뜻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마가복음 12장 30절의 "가장 큰 계명"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네 마음(의 전체)을 다하고 목숨(의 전체)을 다하고 뜻(의 전체)을 다하고 힘(의 전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에서 "모든"(ALL)으로 번역된 형용사는 각각 헬라어 HOLO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전적이란 포괄적이며 모든 차원과 측면에서 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철저하게 그것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의 영역이 우주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첫째 계명이 우선 첫째 자리에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만 누누이 강조하지 주님의 첫째 계명은 등한 시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믿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말씀하신다.

어떤 사역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가 우리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예수를 잘 알고 그 분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골1:27)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으로(골3:3)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고 나는 없어서 진정 내 안에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기에 결과나 규모에 관계없이 성공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통전적 선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모든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나눔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일 것이다.

통전 선교신학이란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복음 전파는 오순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러므로 통전선교는 기독교 신앙과 사상과 행위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성경적 증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전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멤버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문화-민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서로 자기 문화를 강조하고 차별화 하는 경향이 이 세계에서 다른 문화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및 디아스포라 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거룩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을 개발하해 나가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본다.

나가는 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아메리카 지역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능력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능력,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시다.

끝으로 몇 가지 아메리카지역 연구소에서 드리는 제안을 하고 마치고자 한다.

통전적 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 시행으로 사역 확대 정보공유로 이중투자 막고 다음세대 양성 리더십 이양

17-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총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그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통전적인 본문이라고 주장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2장 9-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

을 맞추고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디아스포라 선교

중남미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디아스포라 교회와 디아스포라 인이다 문화와 언어장벽의 벽을 넘어선 이들은 선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한 여호와 이레이다. 지금까지 영재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인 특히 1.5세, 2세, 3세 그 가운데는 PK(목회자 자녀)와 MK(선교사 자녀)들도 있다. 이들은 선교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귀한 자원들이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자원을 잘 사용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구령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계속하여 연구하면서 사역

1. 아메리카 지역 미디어 선교백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목표, 같은 목표인 아메리카 선교에 박차를 가하자.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이중투자를 막으십시오.
 2. 미국의 교포교회와 아메리카 지역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함께 공동사역을 개발하고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가자.
 3. 다음세대를 발굴하고 정체성 확립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하되 통전적 선교와 선교비전을 가진 선교동역자로 세워 함께 일하면서 리더십을 이양하고 사역을 이양하자.
 4.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아메리카 지역을 섬기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자.
- (끝)

책소개

“은혜가 이끄는 변화”

저자 신선묵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신선묵 교수의 저서 '은혜가 이끄는 변화'가 최근 출간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리더십의 본질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이며 관계와 조직 안에서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분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역사를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과 지도력의 변화 주제... 하나님 은혜 더 이해하도록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으로 믿고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 가야 한다.

아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과 지도력의 변화를 주제로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책이 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해나갔다"고 말했다.

본서는 △제1장 은혜가 이끄는 변화 △제2장 영성과 지도력 △제3장 변화를 위한 실제전략으로 엮여졌다.

신선묵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영문과(BA & MA)를 졸업한 뒤 풀러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M.Div, Th.M, D.Miss)를 받았다. 풀러신학교대학원에서 리더십으로 선교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20년 동안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강의해오고 있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 | | | | 감사한인교회 | |
|--|--|--|---|--|---|---|--|
| 서부(CA)교회안내 | | | |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5:00(토) | |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형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청명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 | |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 |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재예배: 오후 7:30(월-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5:00(토) 은혜세미나리: 365일 24시간 운영 |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토) | | |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 |

영어로 보는 성경 (3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Joel 2:12,13

12) Even now, declares the LORD,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13)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NIV 1984)

WORD & IDIOM

* declare: 공포하다 * with your all one's heart: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리나라 * fasting: 금식 * weeping: 울음 * mourning: 신음, 슬퍼함 * rend: 찢다 * garment: 의복 * gracious: 은혜로운 * compassionate: 동정적인, 인자한 * be slow to ~: ~하는데 더디다 * abounding in ~: ~이 풍부한, ~가 많은 * relent: 마음이 누그러지다, 수그러들다 * calamity: 재난, 재앙, 참사

GRAMMAR

12) Even now, declares the LORD
지금이라도 주께서 공포하다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나에게 돌아오라 진정으로
with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 주께서 공포하신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 <declares the LORD>은 <Even now> 과 <return to me ~> 사이에 원표, ()안에 넣은 삼입절로 누구의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V+S의 순으로 도치한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위 문장을 직역하면 <지금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며.">가 된다.

13)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옷은 찢지 말라 → 너희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Return to the LORD your God,
돌아오라 주님께 너희 하나님(이신)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운 그리고 인자한 노하기를 더디 하는 and abounding in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리고 그는 마음이 수그러들다 재앙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 너희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이다.

* <(and not your garments)>는 <(and don't rend your garments)>를 줄여서 쓴 문장이다. 13절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옷을 찢지 말라"가 된다. <(to the LORD your God)>는 <(to+명사+명사)> 형태인데 뒤의 명사는 앞의 명사를 보충하여 수식하는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다.

<for> 이하는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for ... abounding> 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동위접속사 <and> 이후의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가 또 하나의 문장이다.

* <Be동사+형용사+To V> 형태에서 <To V>는 <~ 하기에>로 해석을 한다. 위의 <slow to anger>는 <for> 다음의 <he is>와 연결된 형용사구이다. 참고로 <To V> 앞의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 해서>라고 해석한다. 예) I'm happy to meet you.

STUDY & THOUGH

■ 여호와와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심각성과 압박함을 경고한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경고의 목적이 남 유다의 회개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12절에서의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위로의 내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심령의 통화가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한다(13절). 이러한 성품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When there is repentance, there is hop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왕상17:1)

북이스라엘의 6대왕 오므리과 그의 아들 7대왕 아합왕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온통 죄악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 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했고 음란함이 전국에 유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비참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하

나만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 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 엘리야("여호와와 하나님 이시다") 한 사람이 이름 그대로 온 세상에 여호와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왕상17:1)

문은 바아사와 엘리야가 멸망당하는 내용의 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위대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으나 엘리야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겠

다는 이 선포는 대단한 신앙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비를 내리고 나를 풍부하게 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고 숭배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잠심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며 믿으며 의지해야 합니다.

수 아합에게 고하되(왕상17:1)

하나님 한분만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도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숭배를 해야 했던 그 때에 아합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비위 맞추려고 눈치 보거나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

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한분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목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왕상17:1)

하나님 한분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왕5:17참조) <수> 아합왕에게 선포합니다.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때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말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

습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가 임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금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왕상17:2-3)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2절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주목할 것은 "임하다"입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위에 서고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위에 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

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충만 해서 아합왕과 우상숭배자들을 단번에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으로 서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도망가서 그릇(단절됐다)시냇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시냇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 저가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왕상17:2-7)

아합왕 앞에서 담대하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도망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도 할 말씀에 서서 성령충만한 권임을 이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

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두 즉시 순종해 얻은 것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 가져다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웬 물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엘리야가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순간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시내를 마시우도록 이끄셨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지체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 | | | | |
|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p> |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076(교무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p> |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예배: 오전 12:00(매일) Tel. (02)418-896-1000, 팩스(02)422-075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2646-316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8-808)</p> |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6,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동 713-26호</p> |
|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 <p>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p> | <p>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p> |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142-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20 (147-암살동) www.shincheon.org</p> |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14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p> |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1길 50-1 www.anamjil.or.kr</p> |
|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p> |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403-838)</p> |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p> |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

설립 50주년 희년 맞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찾아서 - ③지교회와 탄자니아 선교

커뮤니티를 넘어 땅 끝까지 복음전파

희년을 맞은 아르헨티나제일교회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며 놀라운 교회 부흥과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학교로 우뚝 세워진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있음을 보았다. 바로 아르헨티나 국내 선교와 탄자니아 선교였다.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4차례씩이나 탄자

니아를 직접 방문해 교회 헌당과 우물 완공식을 통해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자는 탄자니아를 직접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컸지만 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제공해준 탄자니아선교를 담은 영상을 통해 사역소식을 들었다. 아울러 현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최광재 선교사의 간증도 들어본다.

아르헨티노를 위한 지교회 설립

1991년 아르헨티나제일교회는 처음으로 아르헨티노를 위한 선교의 문을 열었다. 당시 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집을 헌납함으로 세워진 라누스제일교회가 지교회 1호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제일교회 사역자가 그곳으로 파송돼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었지만 2000년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현재 에드워드 로하스 목사가 맡아 사역하고 있다.

이후로도 국내 선교는 이어졌다. 북쪽으로는 살파주 엠바르카시온(담임 움베르토 로베스 목사)과 인디오 마을 빠드레로사노(담임 훌리오 산체스 목사)와 휘지칼(담임 아발라 전도사), 오란(담임 마리오 보르탈 목사)시에 지교회를 설립했고 서쪽 국경주인 산후안(담임 앙헬 가리소 목사)시와 산루이스(담임 마르셀로 목사)시에 지교회를 설립하는 등 총 7개 지역에 새 성전과 함께 담임 사역자의 사택까지 신축해 제공함으로 각 지역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도록 돕고 있다.

아르헨티나 담을 넘어 아프리카로

제일장로교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르헨티나의 담을 넘어 케냐와 중국,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의 장을 퍼갔다. 탄자니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최광연 목사의 형인 최광재 목사가 현지에서 은퇴하고 늦깎이 선교사가 돼 탄자니아로 가게 된 것.

그로부터 탄자니아와 연결돼 13개의 현지인 교회를 건축하고 21곳에 우물을 팠다.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학업을 이

어갈 수 없는 학교들을 찾아 재건축했다.

놀라운 것은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제일교회 당회나 교회가 움직인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 개인이 교회를 하나씩 건축하고 우물사역도 맡았다. 학원선교를 위한 건축도 성도 개개인 헌신으로 이뤄졌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직업훈련학교를 새롭게 건축하고 봉제, 편물기계까지 설치했다. 사킬라 중, 고등학교

이 중,고등학교에는 700여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강당 및 다목적실을 건축하고 있다. 올 10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교회와 학교 건축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어쩌면 물이 더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우물을 팠다. 우물 하나를 파려면 1만2천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제일교회 성도 21명의 헌신으로 21곳에서 물이 솟아 오를 때마다 탄자니아 현지인들은 환호와 함께 춤사위가 벌

최광재 목사에게 수재에 가까운 형이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해방이 되기 전 황해도로 가고, 형은 서울에서 경북중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아파 시골로 내려왔다.



우물완공식에서 테이프를 끊으며 활짝 웃고 있는 최광재 선교사(위)와 최광연 목사(좌)

1991년 라누스제일교회 시작으로 7개 현지인 지교회 설립 2013년 시작 탄자니아 선교, 13개 교회건축, 21곳 우물파기 늦깎이 최광재 선교사...뽕튀기, 붕어빵, 와플기계가 선교도구



첫 지교회인 라누스제일교회가 설립기념일을 맞아 제일교회 성도들이 헌신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에는 과학실험실을 건축했다. 실험실 내부에 상수도 시설까지 함으로 실험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컴퓨터실도 마련하는 등 지역 유일의 과학 실험실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은제쿠 중, 고등학교에 여러 교실들을 건축했고 카사루 지역에 마지막

어진다. 이처럼 제일교회가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된 건 최광재 선교사다. 다음은 최광재 목사의 간증이다.

세상 둘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최광재 목사

병원을 다녀도 병명을 찾을 수 없고, 결국 그 동네 풍습대로 굿판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굿을 하니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굿판이 벌어지던 중 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런데 웬일일까? 굿이 끝나고 무당이 돌아가자 돌연 형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유도복을 입고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을 갖고 동네로 나가 동생인 최광재 목사에게 그 성경을 크게 읽으라고 시키기를 반복하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그 시절을 회고한다. 그렇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자, 이번엔 고모가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최광재 목사는 형을 위해 10리 밖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 그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광섬씨'하고 부르니 그 길로 형은 소스라쳐 놀라며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더라. 그저 목사님이 이름만 불렀을

업을 꿈꾸며 자금을 가지러 가는 날 아침, 기침을 하는데 피가 쏟아졌다. 폐병 초기라고 하나 몇 날이 지나도 피가 멎지 않았다. 그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19-20).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한번만 살자, 이번엔 고모가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최광재 목사는 형을 위해 10리 밖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 그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광섬씨'하고 부르니 그 길로 형은 소스라쳐 놀라며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더라. 그저 목사님이 이름만 불렀을

늦깎이 선교사 최광재...뽕튀기, 붕어빵, 와플기계가 선교도구

1971년 영광교회 제 1대 교역자로 부임한 최광재 전도사. 당시 감신대 3학년 재학 중이던 그가 담임으로 부임해 목회를 시작했다. 그의 표어는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모래는 세계'였다. 아마도 오늘의 최광재 목사를 예견이라도 한 것이었을까?... 전도사로 담임 사역자가 된 그는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2011년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현직에서 물러났다.

은퇴를 하면서 '농촌이나 지리산 쪽으로 가서 살아야지...'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분이 있던 전도사가 생일 선물을 사 들고 와서 "이제 은퇴했으니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나 하시죠"라고 던진 말이 씨가 됐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이 나이에 어딜 가냐?"고 웃어 넘겼는데, 앉으나 서나 "가", "가"라는 음성 이 맴돌아 결국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한다. 그때 자신의 표어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모래는 세계'가 새삼 떠올랐다고 한다.

이런 표어 때문인지 최광재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선교에 열심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면 한국에서 선교사를 추천해 파송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선교사가 돼 탄자니아에 머물게 됐다.

이렇게 시작된 늦깎이 최광재 선교사의 선교도구는 뽕튀기, 붕어빵, 와플기계였다. 그곳 현지인들은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뽕튀기를 너무 좋아했다. 뽕튀기의 소음 때문에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 일과였다. 뽕튀기를 뽕뽕 튀기며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탄자니아선교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늦깎이 최광재 선교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제일교회 최광연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 더 큰일을 행하시도록 인도하셨다. 이 모든 열매들을 보며 최광재 선교사와 제일교회 최광연 목사, 그리고 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을 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

이 귀한 사역이 후대까지 이어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몫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성자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 | | | | |
|--------------|---|------------------------|---------------------|--|--|
| 추천 도서 | | | | | |
| 회원사 |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허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 | | | |
| 후원 |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 | | | |
|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 www.koramdeo.com | 복음사 562-865-4949 | | |
| | 두란노서원 213-382-5400 | www.duranno.us | 도르가 서점 714-636-7430 | | |
| | 말씀사 714-530-2211 | www.lifebook.co.kr | | | |
| | 베델서적 949-854-9191 | bethelbook@hotmail.com | | | |
| | 조이 서적 213-380-8793 | www.joyla.com | | | |